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 연구

2014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전혜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 연구

2014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전혜정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김동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asic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rancophonie Learners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전혜정



전혜정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전 혜 정

본고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연구 방법을 제시하며, 선행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초급 교재의 개발을 위해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나타나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오류에 대해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교재의 개발에 앞서 기존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어 초급 교재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먼저 최근에 개발된 통합형 한국어 교재 3종을 선정하고,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교재 분석 기준표를 구성하였다. 교재 분석 기준표에 따라 3종의 교재를 비교·분석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향을 설정하였다. 새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는 메타언어를 프랑스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고루 갖추 수 있는 통합형 교재이다. 또한 문어와 구어가 균형을 이루는 다양한 텍스트를 제시하여 프랑스 학습자들이 어렵게

느끼는 발음, 구어 이해, 경어법의 학습을 강화하고자 한다. 문화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언어 문화와 한국인의 관념 및 가치관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프랑스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그 중 한 단원을 선택하여 교재의 샘플로 제시하여 보았다.

본 논문은 기존의 한국어 교육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 고안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는 실제 프랑스의 교육 현장이나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그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후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보기를 바라며, 초급 교재뿐만 아니라 중, 고급 교재 등 다양한 교재들이 개발되어 프랑스어권 국가들의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프랑스어권 학습자,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 한국어 초급 교재, 한국어 교재 개발, 교재 분석, 문학 텍스트, 한국문화 교육

목 차

1. 서 론	1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1.2 연구 방법	5
1.3 선행 연구	6
2.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	11
2.1 한국어 교육의 현황	11
2.2 한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프랑스 학습자들의 오류	16
3. 교재 분석	19
3.1 교재 분석 기준	19
3.2 분석 대상 교재	22
3.2.1 「Apprenons le Coréen!」	23
3.2.2 「J'aime le Coréen!」	33
3.2.3 「Cours de Coréen」	44
3.3 분석 결과	59
4.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63
4.1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	63
4.2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교수요목의 설계 ..	69

4.3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의 실제	72
5. 결 론	90
참고문헌	93
ABSTRACT	100

표 목 차

<표 1> 파리 7대학교 한국학과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LLCE)’	
과정의 커리큘럼	13
<표 2> 국립동양어대학(INALCO)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LLCE)’	
과정의 커리큘럼	14
<표 3> 교재 분석 기준표	21
<표 4> 분석 대상 교재 목록	22
<표 5> 「Apprenons le Coréen!」의 교수요목	24
<표 6> 「Apprenons le Coréen!」의 문화항목	31
<표 7> 「J'aime le Coréen!」의 주요 목표	34
<표 8> 「J'aime le Coréen!」의 문화항목	42
<표 9> 「Cours de Coréen」의 교수요목	45
<표 10> 「Cours de Coréen」의 문화항목	56
<표 11> 전체 구성	64
<표 12> 학습 활동	67
<표 13>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	69
<표 14>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교수요목	71

그 립 목 차

<그림 1> 국립동양어대학 한국언어문화전공 연도별 학생수	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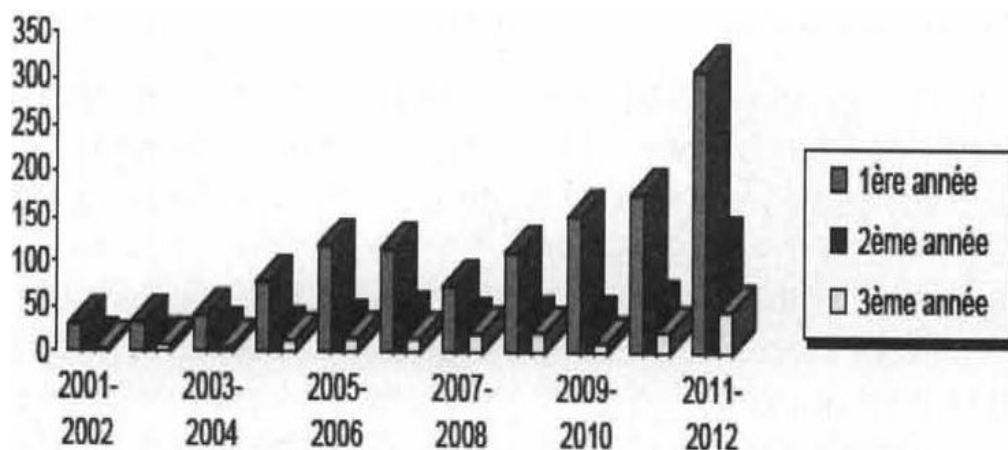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어의 학습 열풍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산되었다. 프랑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Le Parisien)¹⁾에 따르면 프랑스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대학의 한국어 수업 등록 인원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세는 한국어과가 개설된 국립동양어대학(INALCO)에서 3년 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학생 수가 6배 이상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림1 > 국립동양어대학 한국어언어문화전공 연도별 학생수²⁾



1) Les études de coréen attirent de plus d'étudiants français. Le tube planétaire «Gangnam Style» du chanteur sud-coréen de K-pop, Psy, n'y est pas étranger. A l'université de La Rochelle (Poitou-Charentes), les inscriptions ont triplé. (Le Parisien 2013. 4. 23.)

2) Enseigné à l'INALCO depuis 1959 (à l'époque, l'Ecole Nationale des Langues Orientales Vivantes), le coréen occupait déjà dans l'établissement en 1985 (l'année où L'Ecole devenait l'INALCO) une place solide avec 40 à 50 étudiants pour tous les cycles d'enseignement. Depuis 1995, l'INALCO est habilitée à délivrer le diplôme national de licence LLCE de coréen. Depuis l'année 2001-2002, le nombre d'inscrits est en augmentation constante et considérable : celui de l'année 2006-2007 est quatre fois celui de l'année 2001-2002. (INALCO 한국학과 Brochure 참조)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은 11개의 대학기관과 2개의 고등학교가 전부이지만 그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프랑스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Baccalauréat)에서 한국어를 제3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수적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동기도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³⁾.

이홍(2004)에 따르면 그동안 프랑스 고등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한국어나 한국학을 전공하는 학문적인 이유보다는 한국인 입양이나 혹은 한국인과 결혼하였다는 개인적인 이유였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문화와 문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프랑스어로 된 한국어 교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권용해(2005)에서도 지적되었는데 프랑스에서 프랑스어로 된 한국어 교재가 없거나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국내 대학의 언어교육원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는 범용 교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범용교재란 학생들의 언어나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여러 언어·문화권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한국어 교재를 말한다.⁴⁾ 국내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육기관의 경우,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들의 언어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3) 한국어는 바칼로레아에서 제3외국어로 채택되었는데,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에서 제3외국어 과목을 선택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제3외국어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바칼로레아에 20여 년 전부터 한국어 과목이 개설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고등학교에 수업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한국인 자녀들은 한국인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글학교에서, 프랑스인은 저녁에 열리는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를 듣거나 독학으로 바칼로레아를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2011년 9월 프랑소와-마장디 고등학교(Lycée François-Magendie)가 한국어를 제3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하여 1956년 한국어 강좌가 소르본대학에서 인정된 후 55년 만에 고교 정규 교과과목으로 들어 가게 되었다. 이 학교에 개설된 한국어 강좌는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를 제3외국어 과목으로 응시하려는 파리 시내 고교생들을 위한 학교 간 연합 강좌다. 이에 앞서 빅토르-뒤리 공립고등학교(Victor Duruy)에서도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응시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2011.9.29. "佛고교서 한국어 정규 과정 잇따라 채택" 참조).

4) 김성주(2005), "범용 한국어 교재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언어문화학』 제2권 2호, p2 인용.

그러나 범용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백봉자(1999)에서는 한국어 교재 모두가 언어적, 문화적 환경이 다른 서양어권 학습자를 고려한 교재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 학습자를 고려한 교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를 언어권별로 구분하지 않고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며 교재 집필 당시에는 서양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으나 교실에 동양인 학습자가 많은 경우에는 교재의 특성과 상관없이 동양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민현식(2000)에서도 현재와 같은 범용 교재 수준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와 한국 문화나 언어 문화에 대한 비교 이해가 제대로 배려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발전에 맞추어 교재의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그동안 언어권별 맞춤 교재의 개발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특정 언어권에 한정되어 왔다.⁵⁾ 최근 결혼 이주 여성들의 증가로 그들의 모국어인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등으로 된 교재들도 개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어를 제외한 서양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 개발은 부진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그들의 요구와 특성이 반영된 교재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⁶⁾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의 대학에서는 서울대학교의 ‘한국어’, 연세대학교의 ‘연세 한국어’와 같은 국내 대학기관의 범용교재와 하와이 대학에서 영어권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Integrated Korean’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는 파리 7대학에서 사용해 오고 있으며, 라로셀 대학에서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교재로 사용했었다. ‘Integrated Korean Beginning’은 2004년부터 라로셀 대학교 교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보르도 3대학에서도 부분적인 교재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연세 한국어’는 국립동

5)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월말까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출간된 한국어 교재는 3,399권에 달한다. 이 중 일본이 1,530권으로 45%, 중국이 424권으로 12.5%, 미국이 223권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4권으로 0.1%에 불과하다.

6)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EAKLE)는 유럽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2007년 9월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교에서 열린 제1차 유럽 한국어 교육자 현지 워크숍에서 설립되었다. 2014년 현재 22개국 1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양어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사용하고 있다. 한국어'와 '연세 한국어'가 국내의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면 'Integrated Korean'은 영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교재를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랑스 학습자들이 어휘와 문법 항목에 대한 사용과 의미를 보다 확실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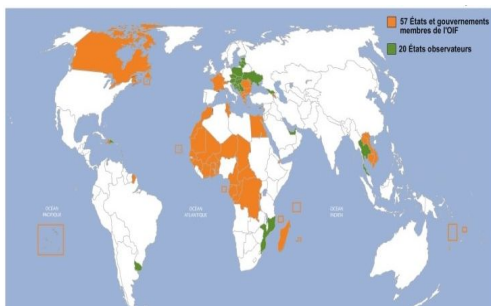
둘째, 교재구성에 있어서 구어 능력보다는 문어 능력 향상에 무게를 두고 있어 학습자에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⁷⁾

셋째, 설정된 상황이나 주제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거리가 있다.

프랑스어는 29개 나라에서 공식 언어로 지정되어 있고, 그 중 대부분의 나라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인 프랑코포니(La Francophonie)⁸⁾를 구성하고 있다. 또한 국제연합(UN)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의 공식 언어이다. 프랑스어는 유럽에서 네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모국어이며,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이다. 실제로 프랑스의 한류 관련 사이트에서 프랑코포니 국가들의 10대~20대 학생들이 서로 한국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⁹⁾. 따라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

7) 권용해(2005)에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서 프랑스 학습자들은 '한국어 1'과 'Integrated Korean'은 듣거나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보다는 문법과 문어 이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재라고 인식하였는데, 이는 한국어 학습시 '구어 이해'와 '구어 표현'을 중점으로 배우고 싶다는 프랑스 학습자들의 요구에 부합되는 교재가 아니라는 결과를 학습자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것이다.

8) 공식적으로는 "프랑스어권 국제 기구"(프랑스어: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la Francophonie, OIF)라고 부른다. 국제 무대에서 프랑스어의 위상을 지키고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창설되었다. 프랑코포니에 가입한 나라들은 프랑스어 사용국 및 과거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은 나라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아랍 국가들(이집트)과 기타 국가들(불가리아, 루마니아 등)도 포함되어 있다. 50개 정회원국과 27개 참관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http://www.francophonie.org> >.



9) <http://www.cours-coreen.fr>
<http://coree.kimiko.be>

춤 교재의 개발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어권 국가의 학습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초급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먼저 비교적 최근에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어 교재 3종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교재를 초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재까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초급 과정의 교재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중, 고급의 교재가 개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개발하게 될 중, 고급의 교재도 초급 교재가 추구하는 교수법, 학습활동에 근거하여 개발 방향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초급 교재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를 비교·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교재의 구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의 한국어 학습자와 프랑스어권 국가의 한국어 학습자,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는 프랑스인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각 장 별로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밝히고, 각 언어권별 맞춤형 교재의 개발에 관한 연구와 프랑스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전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2장에서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인 파리 7대학교와 국립동양어대학(INALCO)의 커리큘럼을 살펴보고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또한 대조언어학에 근거하여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http://www.encoreedusud.com>

<http://www.autrementlacoree.com>

<http://www.hallyu.fr>

있어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그들을 위한 맞춤 교재 개발 방안 구상에 활용한다.

3장에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의 기초 작업으로써 프랑스어로 발행된 한국어 초급 교재를 분석한다. 교재의 분석을 위하여 교재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교재 분석 기준표를 구성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최근에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해 개발된 한국어 교재 3종을 비교·분석한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구성 모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과 논의를 마무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3 선행 연구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 개발에 관한 끊임없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프랑스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언어권별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와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와 한국학 전반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았다.

언어권별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은 동양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중심을 이룬다. 그 중 일본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를 비교·분석한 것으로는 이은희(2014), 박소연(2011), 이선아(2000)가 있다.

이은희(2014)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초급단계 한국어 교재를 비교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문법번역식이나 청화식 교수법을 나타내는 교재에 가깝고, 한국의 교재가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교재이기는 하나 여전히 문법적 요소들이 많이 있고, 양국 모두 교수자 주도형의 교재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박소연(2011)에서는 일본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다섯 권의 교재를 교재 평가 기준 중 내적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선아(2000)에서는 체계적으로 통일된 초-중-고급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

며 단계적으로 다른 구성 방법이 적용된 교재라야 한다고 하였다. 초급의 단계에서는 문법 중심의 구조주의적 접근방법을 중점으로, 고급으로 갈수록 담화 차원의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를 갖추어 연습할 수 있는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김주향(2010)과 최윤곤(2006)이 있다.

김주향(2010)에서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무역 한국어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학습자들의 다양한 목적에 따라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역이라는 특수성에 초점을 맞춘 무역 한국어 교재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김주향(2010)은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와는 차별화 되는 ‘무역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최윤곤(2006)에서는 중국의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국의 특성상 한국에서 개발된 통합형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교과목에 따라 문법, 쓰기, 듣기, 시청각, 독해용 교재 등 범주별로 교재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이선화(2014), 정주리(2011), 고혜진(2011), 민상희(2010)가 있다. 이 중 고혜진(2011)을 제외하고는 여성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선화(2014)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가 자녀의 양육을 시작하는 시기가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초기임을 감안하여 그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육아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어 교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정주리(2011)에서는 다양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급 수준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상희(2010)에서는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대조 분석하여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혜진(2011)에서는 베트남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분석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재에 학습자의 맥락을 반영한 내용 구성도 중요하지만 교재의 주제, 언어기술, 언어지식, 문화 영역 등의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인도네시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Suci Dewi(2010)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대학교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법 과목이 분리되어있음에도 한국 대학기관의 통합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교재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기능이 분리된 교재를 제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이 한국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말하기 교재를 분리 교재의 샘플로 제시하였다.

서양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동양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수적으로 많지 않다.

백봉자(1999)는 서양어권 학습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논하고, 그들을 위한 교재의 요건을 교육 과정, 교수 요목, 교수법과의 연관 하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서양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음운체계, 발음, 문법 등의 구성 방안을 제시하며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하였다.

서양어권 중에서는 러시아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운정(2012)에서는 러시아 사하공화국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지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초급 교재를 비교·분석하여 그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엘레나(2011)에서는 러시아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말하기 교재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재홍(2006)에서는 러시아 현지에서 영어권 화자를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는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러시아 화자만을 위한 초급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구로는 강승혜(2012)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의 개발 실태를 주요 영어권 국가인 미국의 현황을 중심으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기타 영어권의 사례와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이

를 바탕으로 현장의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요구조사와 세미나를 실시하여 교사와 학습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교재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스페인어 화자를 위한 연구로는 황수정(2010)이 있다. 황수정(2010)에서는 스페인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모형을 연구하였는데, 한국어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스페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에 대해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터키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김성주(2005)에서는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며 터키 앙카라대학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터키어와 한국어를 비교·설명하였다. 또한 바람직한 개별 한국어 교재의 저자는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어 구사자와 개별 언어의 고유한 체계와 고유한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한국인 저자로 이루어진 공동 저자인 경우여야 하고, 양자 모두 한국어 교육에 대한 전문가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크게 발음, 문법, 교재 개발과 한국어 교육 전반에 관한 것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발음에 관한 것들인데 김은애(2013), 박세희(2012), 박호은(2012)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애(2013)에서는 음향분석을 통해 프랑스인 학습자의 발음 습득에 대해 연구하여 프랑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와 한국어 발음 습득시 나타나는 특징을 밝히고 그에 따른 발음 교수 및 교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세희(2012)에서는 프랑스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여 한국어 음운 현상의 오류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였고, 각 오류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원인을 밝혔다.

박호은(2012)에서는 음운 대조분석과 학습자 오류 분석을 중심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해 연구하였다. 프랑스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테스트 조사와 면담을 통해 학습자의 발음 양상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어 발음 교육 항목을 난이도에 따라 등급별로 선정하여 발음 교육내용을 구축하였다.

문법에 관한 연구로는 Guillet Benoit(2010), 이휘(2009), 손희연(2007)

이 있다.

Guillamet Benoit(2010)에서는 프랑스인이 한국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문법이라고 보고,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와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실시하여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들은 조사, 보조사, 연결어미, 경어법 습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휘(2009)에서는 초·중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을 연구하여 프랑스어의 부정표현의 특징과 프랑스어권 학습자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국어 부정표현 <안>, <못>, <말다>의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하였다.

손희연(2007)에서는 프랑스의 한국어 교수·학습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프랑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문법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학에 대한 연구로는 조태린(2013)이 있다. 조태린(2013)에서는 프랑스 주요 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을 분석하여 한국학의 한 분야로서 한국어학의 위상을 논하였다. 그러나 한국어교육이 한국학의 한 분야로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프랑스인의 한국어 학습과 교육상의 문제점을 다룬 연구로는 Martin Prost(1997)가 있는데, 이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 학생들은 이론에 관한 관심이 많고 언어의 기능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반면, 실제 응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프랑스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는 이러한 국민성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프랑스 학습자에게 무조건 모국어로 번역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 보다는 개념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는 강승혜(2012)와 권용해(2006)가 있는데, 강승혜(2012)의 연구가 프랑스의 재외동포를 위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면 권용해(2006)는 프랑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강승혜(2012)에서는 프랑스에 정착하고 있는 교포들과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한국어 학습에 대한 동기와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어 학습이 진학과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에 맞는 교재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권용해(2006)에서는 프랑스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재를 선정하여 실제 교실에서 사용해 본 후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초급 교재 구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국내 거주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이 연구는 프랑스에서 실제로 한국어를 학습하는 프랑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와 같이 선행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 한국어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는 동양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발음이나 문법교육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존에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재 개발 방안을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제시한다면 향후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언어권별 맞춤교재 개발 방안들을 참고하고, 프랑스 학습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프랑스에서의 한국어교육

2.1 한국어 교육의 현황

프랑스 한국학 연합(Association Française Pour la corée, AFPEC)의 자료¹⁰⁾에 따르면, 2014년 3월을 기준으로 프랑스에서 한국어 수업이 개설되어 있는 교육기관은 국립동양어대학(INALCO), 파리 7대학교(Université Paris Diderot-Paris 7), 리옹 3대학교(Université Lyon III),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보르도 3대학교(Université Michel de Montaigne-BordeauxIII), 프로방스 대학교(Université de Provence Aix-Marseille 1), 벨포르-몽벨리아르 기술대학교(UTBM), 라로셀대학교(Université La Rochelle), 아브르대학교(Université du Havre), 루앙대학교(Université de Rouen), 파리정치대학(Science Po)등 총 11개 대학과 빅토르 뒤리

10) <http://afpec-etudescoreennes.com/informations/institutions> 참조

공립고등학교(Lycée Victor Duruy), 프랑스와-마장디 고등학교(Lycée François Magendie)등 2개의 고등학교이다. 이 중 규모나 영향력 면에서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연구와 교육을 대표할 만한 위치에 있는 파리 7대학교와 국립동양어대학(INALCO)의 한국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파리 7대학교

파리 7대학교(Université Paris7)는 동아시아 언어문화대학(UFR Langues et Civilisation de l'Asie Orientale, LCAO)에 한국학과(Section de Coréen)를 설치하고, 학사(License), 석사(Master), 박사(Doctorat) 과정¹¹⁾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에서의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파리 7대학교 한국학과 학사 과정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LLCE¹²⁾)’과정, 한국어를 주전공(Majeure, 매 학기 약 180시간, 60%)으로 하고, 영어, 영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지리, 역사, 현대문학, 언어학 중 하나를 택하여 부전공(Mineure, 매 학기 72시간, 40%)으로 하는 ‘주전공/부전공’ 과정, 동아시아 문화대학에서 교육되는 언어를 2개 선택하는 ‘이중언어(Bilingue)’과정 등이 그것이다¹³⁾. 이 중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 과정은 한국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학습자가 한국 관련 문화 일반과 탄탄한 한국어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의 커리큘럼을 학년별, 학기별 과목명 및 이수 학점과 함께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1) 프랑스의 학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 공동 학제(License, Master, Doctorat)로 전환하여 학사 3년, 석사 2년, 박사 3년 총 8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LLCE(Langue, littérature et civilisation étrangères)

13) <http://www.univ-paris-diderot.fr/LCAO> 한국학과 홈페이지 참조

<표1> 파리 7대학교 한국학과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LLCE)’ 과정의
커리큘럼¹⁴⁾

학년	1학기		2학기	
	과목	학점	과목	학점
1 학년	초급 한국어1 (문법, 연습, 말하기)	4	초급 한국어3 (문법, 말하기, 한자)	4
	초급 한국어2(말하기)	3	초급 한국어4(말하기 표현)	3
	한국 문화1	3	한국 문화2	3
	컴퓨터 강좌	1	LanSad1	1
	자유 선택1	2	자유 선택2	2
2 학년	중급 한국어1(문법, 쓰기)	4	중급 한국어3(문법, 쓰기)	4
	중급 한국어2 (말하기, 한자)	3	중급 한국어4 (말하기, 한자)	3
	한국 문화3	3	한국 문화4	3
	LanSad2	1	LanSad3	1
	자유 선택3	2	자유 선택4	2
3 학년	고급 한국어1(문법, 쓰기)	2	고급 한국어4(문법, 쓰기)	2
	고급 한국어2 (말하기, 번역)	3	고급 한국어5 (말하기, 번역)	3
	고급 한국어3 (문서, 문학작품)	3	고급 한국어6 (담화, 문학작품)	3
	전공1	2	전공2	2
	자유 선택5	2	자유 선택6	2

<표1>의 커리큘럼을 보면,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동시에 학습하는 통합적 방식이 아니라 나뉘어 학습하는 영역별 교육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별 과목들은 이론과 실습으로 나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다음에 살펴 볼 국립동양어대학의 커리큘럼과는 대조적이다. 말하기 수업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루어지는 반면, 쓰기 수업은 2학년 부터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말하기 위주의 수업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문화’ 등과 같은 한국학 일반에 해당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14) <http://www.eurokorean.org/francegermany.php> 참조

2) 국립동양어대학(INALCO)

국립동양어대학(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INALCO)은 유럽 지역 언어를 제외한 전 세계 76개 언어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특성화된 대학기관이다. 파리 7대학교 한국학과와 마찬가지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두를 개설하고 있는데 학사 과정 졸업 후에는 한국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거나 한국어를 제2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하여 행정고시에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특히 한국언어문화전공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FLE) 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연계 전공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대학의 '외국 언어, 문학, 문화 학사(LLCE)' 과정의 커리큘럼을 학년별, 학기별 과목명 및 이수 학점과 함께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2> 국립동양어대학(INALCO) '외국 언어, 문학, 문화학사(LLCE)'
과정의 커리큘럼¹⁵⁾

15) Répartition des enseignements(INALCO 홈페이지 참조)

	Enseignements fondamentaux (langue, littérature, civilisation) 120 ECTS	Enseignements transversaux 18 ECTS	Enseignements d'approfondissement 30 ECTS	Enseignements d'ouverture(libres) 12 ECTS	
S1	24 ECTS	3 ECTS	—	3 ECTS	30 ECTS
S2	24 ECTS	3 ECTS	—	3 ECTS	30 ECTS
S3	21 ECTS	3 ECTS	6 ECTS	0 ECTS	30 ECTS
S4	21 ECTS	3 ECTS	6 ECTS	0 ECTS	30 ECTS
S5	15 ECTS	0 ECTS	9 ECTS	6 ECTS	30 ECTS
S6	15 ECTS	0 ECTS	9 ECTS	6 ECTS	30 ECTS
Total	66.7%	10%	16.7%	6.6%	180 ECTS

학점 계산단위는 ETCS로 불리는 데 모든 한국어 수업은 한 수업당 3ETCS이다. 한국식 학점 체계와 비교하면 3ETCS가 1학점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볼 때 INALCO의 한국어 수업은 한 수업당 1학점이 된다(<http://www.eurokorean.org>의 참조).

학 년	과목 유형	1학기			2학기						
		과목		학점	과목		학점				
1	전공	문법 1	한국어 기초 문법1	3	문법 2	한국어 기초 문법2	3				
			대화 문법1	3		대화 문법2	3				
			텍스트 문법1	3		텍스트 문법2	3				
		언어 실습 1	쓰기 연습1	3	언어 실습 2	쓰기 연습2	3				
			말하기 연습1	3		말하기 연습2	3				
			실용 한국어1	3		실용 한국어2	3				
		한국의 제도		3	한국의 지리		3				
		한국학 방법론 (남과 북)1		3	한국학 방법론 (남과 북)2		3				
	학제	인문학 방법론		1.5	정보처리		1.5				
		제2외국어 또는 영어1		1.5	제2외국어 또는 영어2		1.5				
개방	자유선택		3	자유선택		3					
2	전공	문법 3	대화 문법3	3	문법 4	대화 문법4	3				
			텍스트 문법3	3		텍스트 문법4	3				
		언어 실습 3	쓰기 연습3	3	언어 실습 4	쓰기 연습4	3				
			말하기 연습3	3		말하기 연습4	3				
			실용 한국어3	3		실용 한국어3	3				
		한국 문학1		3	한국 문학2		3				
		한자1		3	한자2		3				
	학제	선택		3	선택		3				
	심화	선택		3	선택		3				
				3			3				
3	전공	문법5		3	문법6		3				
		언어 실습 5	문어 이해와 표현1	3	언어 실습 6	문어 이해와 표현2	3				
			구어 이해와 표현1	3		구어 이해와 표현2	3				
			작문과 해석1	3		작문과 해석2	3				
			한국 문학3			3	한국문학과 번역		3		
	심화	선택		3	선택		3				
3				3							
3				3							
개방				자유 선택			3	자유 선택		3	
							3			3	

이상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문법 지식을 학습한 다음 언어 실습에서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 능력을 습득하도록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문법 과목도 대화 문법(구어체)과 텍스트 문법(문어체)으로 나누어 학습하고 이를 다시 문어 이해와 표현, 구어 이해와 표현으로 나누어 실습하고 있다. 국립동양어대학은 문법 수업 보다 언어 실습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법 수업 수는 줄어드는 반면 언어 실습 수업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파리 7대학과 국립동양어대학(INALCO) 모두 학사 과정이 3년 6학기로 이루어져 있지만 3년 동안 한국어를 고급 수준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인다.¹⁶⁾ 두 대학의 커리큘럼에서 한국어 교육이 초급, 중급, 고급 각 2단계씩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 대학의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한 외국인들과 동일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¹⁷⁾.

따라서 일상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존재하기 어려운 프랑스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며, 이 단계에서 학습자의 자국어 체계와 자국 문화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2.2 한국어 학습에서 나타나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오류

외국어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모국어를 들 수 있다. 모국어와 목표어의 언어 체계가 비슷하다면 학습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이가 일어나 학습을 돕겠지만 반대로 모국어와 목표어의 언어 체계가 상이하다면 학습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대조 언어학¹⁸⁾의 관점에서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비교해 볼 때, 프랑스어권

16) 프랑스 La Rochelle 대학의 경우 한국어 수준이 초급, 중급, 고급, 최고급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통상 1학년(초급)은 1급에, 2학년(중급)은 2급에, 3학년(고급)은 3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석사과정의 최고급은 4급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프랑스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프랑스 대학생에게는 3급을 넘어 가기 쉽지 않다고 한다(권용해:2012 “한국에서의 교수법을 응용한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수법 연구”, p17인용).

17) INALCO의 3학년의 경우 독해와 작문 교재로 연세대학교의 3급 교재와 서울대학교의 4급 교재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언어교육원인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1급부터 6급까지 모두 수료할 경우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은 둘 이상의 언어를 비교·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림으로써 하나의 언어를 고립적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얻기 어려운 통찰을 얻어 내는 것이 주목적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발음, 어휘, 문법 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첫째, 발음 측면에서 많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언어 구조상 자음에서는 [ㄱ, ㄴ, ㄷ, ㄹ, ㅂ, ㅅ, ㅈ]19), 모음에서는 [ㅡ, ㅏ]20)의 발음을 힘들어

이다(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외(2011),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아카넷, p413 인용).
19)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자음체계 대조>

			양순음	순치음	치음	치조음	후치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구개수음	후음
파열음	평음	유									
		무	ㅏ			ㄷ			ㄱ		
	경음	유	b		d				g		
		무	ㅁㅁp		t	ㄷ			ㄱk		
	격음	유									
		무	ㅑ			ㅌ			ㅋ		
마찰음	평음	유									
		무				ㅅ					ㅎ
	경음	유		v	z		ʒ	j, ɥ	w		
		무		f	s	ㅆ	ʃ				
	격음	유									
		무									
파찰음	평음	유									
		무						ㅈ			
	경음	유									
		무						ㅊ			
	격음	유									
		무						ㅊ			
비음	유	ㅁm		n	ㄴ		ɲ	o ɲ			
	무										
유음	유			l	ㄹ						
	무										
전동음	유								R		
	무										

(박호은(2012).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p40 인용)
20)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모음체계 대조>

	전설모음				후설모음			
	한국어		프랑스어		한국어		프랑스어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평순	원순
고모음	이/i/	위/y/	i	y	으/u/	우/u/		u
중고모음	에/e/	외/ø/	e	ø	어/ɛ/	오/o/		o
중저모음	애/ɛ/		ɛ	ə	아/a/			ɔ
저모음			a	œ				ɑ

(박호은(2012).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p25 인용)

한다²¹⁾. 또한 자음 ‘ㅎ’은 프랑스어에서 발음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ㅎ, ㅇ, ㄹ’을 발음할 때는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²²⁾. 종성에 위치한 ‘ㅇ’ 발음의 경우 프랑스어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는 대신 비음이 존재하는 관계로 종성 ‘ㅇ’의 발음을 비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²³⁾.

그러나 연음과 탈락 현상의 경우 프랑스어와의 유사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이 프랑스어권 학습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프랑스어의 연음은 한국어의 연음과 매우 유사하게 실현되기 때문에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한국의 연음을 학습할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대표적인 탈락 현상인 ‘ㅎ 탈락’은 프랑스어의 음운 현상중 대표적인 ‘e 탈락²⁵⁾’ 현상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휘면에서 프랑스어권 학습자에게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모국어 간섭현상으로 “이다”와 “있다”가 있다. 한국어의 동사 “이다”와 “있다”에 해당하는 프랑스 동사로는 “être”동사 한 가지뿐이다. 다시 말해 “être”동사는 한국어의 “이다”와 “있다”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인 학습자들이 이 두 동사를 혼동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²⁶⁾

또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한자에서 비롯된 한국어 어휘와 한국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을 낱설어 한다²⁷⁾.

셋째, 문법면²⁸⁾에서 한국어는 SOV형이고, 프랑스어는 SVO형 언어여서 어

21) 프랑스 학습자들은 중급이상의 한국어 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도 ‘ㄴ’을 정확히 발음하지 못하고 ‘ㄹ’로 발음하는 오류를 범한다.(예) 의자[위자]. 이는 프랑스어에 이러한 모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된 오류라고 하겠다.

22) 프랑스어 자음 중 목젓음, 구개수음인 r[R]가 조음위치 상 가장 뒤에 위치한 자음인 관계로, 프랑스 학습자들이 ‘ㅎ’을 그들 언어의 r[R]처럼 발음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 한국 [안국].

23) 예) 가방[gabā]

24) 예) des amis[dezami], grand homme[grātōm]

25) 예) seulement[sœlma], justement[jystēma]

26) 한류 관련 사이트를 보면 “Je suis Samantha et je suis en Corée.”를 “저는 Samantha입니다. 저는 한국입니다”와 같이 표현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27) 프랑스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름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부르거나 “Madame”, “Mademoiselle”, “Monsieur”과 같은 호칭을 사용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직책이나 친족 관계에서 다양한 호칭을 사용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친족 호칭을 친족 아닌 사람에게까지 확장해서 쓰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단골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여성을 ‘이모’나 ‘언니’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는 낯선 내용이다.

28) 권용해(2006)에서는 한국어에는 프랑스어에 존재하는 각 인칭별 동사 변화, 10개의 시제, 명사의 남성·여성형 구별, 형용사의 성·수 일치 등에 해당하는 문법이 없기 때문에 한국어 문법이 쉽다고 생각하는 학습자도 있다고 한다. 따라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이러한 부분

순의 차이로 인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다. 프랑스어는 어순으로 문장 성분을 표시하기 때문에 프랑스 학습자들은 명사 뒤에 그 문장의 격과 의미를 지시하는 조사의 사용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⁹⁾. 또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은 주체경어법이나 객체경어법과 같은 경어법에 대한 지식과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문장에 자연스럽게 적용하기 힘들다³⁰⁾.

이와 같은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화석화되지 않도록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언어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 대조 분석한 교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교재 분석

3.1 교재 분석 기준

교재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습자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교재에는 교육 목표가 들어 있으며,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내용과 방법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교재 개발은 교육 목표를 체계적으로 실현하는 도구를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함이고, 교재를 분석하는 목적은 교재의 장·단점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교

을 알려주어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9)

내 취미 여행이 있습니다. 열일곱살 혼자 미국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사람 만나서 한국 가기로 해서 스무살 한국 갔습니다. 서울이 큰 도시 있지만 예쁜 도시 있습니다.

위의 초급 프랑스인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프랑스 학습자들에게는 주격조사 ‘-이/가’, ‘은/는’과 목적격조사 ‘-을/를’,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류는 한국어는 교착어로써 체언에 결합하는 격조사가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을 결정하는 데 반해, 프랑스어는 조사가 없는 언어이므로 조사의 종류를 구별하는데 있어서도 인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0) 프랑스어의 높임법은 한국어의 경어법에 비교하면 상대 높임법에 해당한다. 즉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높이지 않고 말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어에서는 상대방에게 말할 때 동사를 이인칭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상대방을 높여야 할 경우 복수형 이인칭에 해당되는 대명사와 동사활용형을 사용한다. 예) 어떻게 지내? Comment vas-tu? →어떻게 지내세요? Comment allez-vous?

(Guilamet Benoit(2010).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방안」, p54 인용)

재의 개선 방향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교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업에 적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Thimm(1996)은 교재 분석의 방법을 크게 기술적·분석적 방법과 내용 분석적 방법으로 나누었다. 기술적·분석적 방법은 텍스트의 의미 해석을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우선 대략적인 구상을 하고 인상이나 관찰을 통해 처음의 구상을 발전시키거나 수정하는 방법이다. 내용 분석적 방법은 양적인 내용 분석과 질적인 내용 분석으로 나뉘는데, 양적인 내용 분석에서는 텍스트의 내용과 의견 등을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양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특정한 텍스트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범위를 측정하는 공간 분석과 특정한 텍스트 요소의 빈도를 측정하는 빈도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질적인 내용 분석은 양적인 내용 분석으로 볼 수 없는 잠재성, 현재성, 특이성·단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석 방법이다.³¹⁾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교재 분석 및 평가 기준을 다룬 논의로는 진대연(1999), 황인교(2003), 강남옥(2005) 등이 있다.

진대연(1999)에서는 한국어 교재 분석 기준을 교육과정 관련 기준, 교재의 제작 및 선택 관련 기준, 교실 수업 관련 기준으로 크게 나누고, 세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분류 사항을 제시하였다.

황인교(2003)에서는 교재 분석 항목을 교수 학습 상황, 외적인 구성, 내적인 구성으로 나누어 설정³²⁾하고, 구체적인 세부 항목을 담아 교재 분석표를 제시하였다.

강남옥(2005)에서는 한국어 교재 평가를 위해 9가지 평가 영역 아래 총 76개의 세부 항목을 반영한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한국어 교재들이 의사소통 중심의 통합교재로 출판

31) 진대연(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p413 재인용

32) ① 교수 학습 상황: 현장, 학습자, 교사

② 교재 외적인 구성: 모양 및 구입, 관련 구성물, 저자 또는 기관 정보 유무

③ 교재 내적인 구성: 구성(전체, 단위), 학습 내용(주제, 문법, 어휘, 발음, 담화, 문화), 학습 활동(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학습평가와 피드백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황인교(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에 의해 교재 분석 기준 항목을 설정하였다.

첫째, 분석 교재가 한국어 초급 교재인 만큼 교재의 내적인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교재 분석 기준표의 틀을 구상하였다. 내적인 구성면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이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교재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각 교재의 학습 내용이 총체적인 숙달에 필요한 주제, 문법, 어휘, 발음, 문화, 활동 등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 살피기 위함이다.

둘째, 학습자 중심의 원리를 고려하여 분석 대상 교재가 프랑스어권이라는 특수 언어 환경을 고려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설정한다.

<표 3> 교재 분석 기준표

교재의 구성	전체 구성	• 교재의 전체 구성은 어떠한가?
	단원 구성	• 각 단원의 구성은 어떠한가?
교재의 내용	주제	• 주제가 다양하며,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경험 가능한 것인가? • 주제가 과제 기능과 관계가 있는가? • 의사소통 상황과 대화 상대자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문법	• 문법 설명에 부합되는 적절한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된 예문은 다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가? • 문법 설명은 프랑스어와 대조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어휘	• 새롭게 제시된 어휘에 대한 설명이 있는가? • 새롭게 제시된 어휘가 주제와 관련이 있는가?
	발음	• 발음표기가 있는가? • 음운규칙을 제시하였는가? • 발음 방법은 프랑스어와 대조하여 설명하는가?
	문화	• 다양한 문화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 주제 또는 내용과 연관이 있는가? •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가? (한국 문화에 대한 충격,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 프랑스 문화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가? • 설명과 제시 위주로 소개하는가, 과제 활동도 포함하고 있는가?
	학습 활동	• 학습활동이 다양하고 통합적인 기능을 갖는가? • 학습활동이 의사소통 중심인가? •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활동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는가?

3.2 분석 대상 교재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Apprenons le Coréen!」, 「J'aime le Coréen!」, 「Cours de Coréen」 등 총 3종 5권의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³³⁾.

분석 대상 교재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4> 분석 대상 교재 목록

교재명	저자	출판사	출판년도	권수
Apprenons le Coréen!	최은숙 외 공저	보르도 대학교 출판부	2013	2
J'aime le Coréen!	윤소영	신아사	2012	1
Cours de Coréen	권용해 외 공저	다락원	2013	2

33) 2009년 한국어세계화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1864년부터 2009년까지 프랑스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Aperçu de la langue Coréenne」, 「J'aime le Coréen!」, 「Manuel de Coréen」, 「Le Coréen sans Peine:Korean for French」 등 총 4종으로 확인되었는데, 프랑스의 유명 인터넷 서점 사이트인 <http://www.fnac.com/>에서 Coréen으로 검색해 본 결과 총 145권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차와 검색된 대부분의 책들이 한국문화와 여행 한국어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09년의 조사는 오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 교재로 선정한 3종의 교재 외에 국내에서 프랑스어로 된 한국어 통합 교재를 구하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3종의 교재만을 선정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이 교재들은 통합 교재라는 특성과 함께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고, 저자들이 모두 현재 프랑스에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Apprenons le Coréen!」은 2013년 10월 프랑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정규 교과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산하 한국교육원과 한불언어문화교육자협회가 공동으로 발간하였다. 보르도 대학 출판부가 출판비 전액을 부담하여 프랑스 교과서 시장에 보급하기로 하고, 프랑스를 비롯해 프랑스어권 국가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

「J'aime le Coréen!」과 「Cours de coréen」역시 최근에 개발된 교재로 프랑스에서 다년간 한국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교수들이 저자이기 때문에 현재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3.2.1 「Apprenons le Coréen!」

1) 교재의 구성

① 전체 구성

「Apprenons le Coréen!」은 주교재에 해당하는 「Apprenons le Coréen!:Manuel」과 워크북에 해당하는 「Apprenons le Coréen!:Cahier d'exercices」, CD로 구성되어 있다. 주 교재는 총 14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구성은 본 단원의 앞부분, 본 단원, 본 단원의 뒷부분으로 나뉜다. 본 단원의 앞에는 교재의 소개, Plan du manuel, plan de chaque leçon, 한글 소개, 등장인물 소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단원 뒷부분은 부록, 정답, 본문의 로마자표기, 본문의 프랑스어 번역, 문법 색인, 단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단원 구성

「Apprenons le Coréen!」의 각 단원은 대화(Dialogue)→단어 모음(Vocabulaire)→발음(Prononciation)→문법(Grammaire)→표현(Expression)→속담(Proverbe)→연습문제(Exercices)→작문(Thème)→이해(Compréhension)→받아쓰기(Dictée)→따라읽기(Répéter à haute voix)→문화(Culture)→노래/시(Chanson/Poème)로 이루어져 있다³⁴⁾.

다음에 분석하게 될 2종의 교재들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받아쓰기(Dictée)와 따라읽기(Répéter à haute voix)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기관의 언어교육원에서 개발된 초급의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 속담(Proverbe)과 노래/시(Chanson/Poème)를 초급의 단계에서부터 포함하고 있는 점이 이 교재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2) 교재의 내용

「Apprenons le Coréen!」에서 학습을 통해 익히는 기능과 문법, 표현 등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 「Apprenons le Coréen!」의 교수요목³⁵⁾

Leçon	Fonction	Titre	Grammaire	Expression	Compréhension orale/écrite	Culture
1	Salutations	안녕하세요?	N1은/는 N2이에요./예요. N1은/는 N2입니다. N은/는(particule du thème) 제 N	나라 이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La philosophie orientale et le drapeau national coréen, Taegeukki
2	Noms d'objets	이건 뭐예요?	N1은/는 N2이/가 아니예요./아니예요? N1은/는 N2이/가 아닙니다./아닙니까? 무엇(뭐), 누구, 언제, 어디	대답	이건 뭐예요? 그건 한국어 책이에요.	Dangun, le myth fondateur de la Corée

34) 「Apprenons le Coréen!」의 Pland de chaque leçon 인용

35) 「Apprenons le Coréen!」의 Plan du Manuel 인용.

본고에서 선정한 3종의 교재의 교수요목은 그 구성 방식과 명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pprenons le Coréen!」은 Plan du Manuel로 「Cours de Coréen」은 내용 구성표(Tableau des contenus)로 되어 있고, 「J'aime le Coréen!」은 교수요목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Plan du Manuel과 내용 구성표(Tableau des contenus)가 교수요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교수요목이라 칭하기로 한다.

교수요목을 근간으로 교재가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지향점과 교재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하여 3종의 교재의 교수요목이 구성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하는 과정 없이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하게 될 교재 분석은 교수요목을 참고할 뿐 교재 분석 기준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밝힌다.

			이/그/저 이것/그것/저것+은 →이건/그건/저건			
3	Profession et nationalité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N N이/가(particule du sujet) 무엇→뭇→뭉, 것→거 그리고 이것/그것/저것+이 →이게/그게/저게	직업	저는 한국 사 람이에요. 직업이 뭐예요? 저는 회사원 이에요.	Le pays des dolmens
4	Noms de lieux	우체국은 저기예요.	R+습니다./ㄴ니다. R+습니까?/ㄴ니까? N을/를 (particule du C.O.D.) 여기/‘거기/저기+는 →여긴/거긴/저긴	장소	저기는 어디예요? 저기는 시장 이에요.	La philosophie du hangeul
5	Recherche des objets et de leurs emplacements	지갑이 어디에 있어요?	R+아요.(?)/어요.(?) N이/가 있다 N이/가 없다 N에 (particule de lieu) 이것/그것/저것+을 →이걸/그걸/저걸	위치	컴퓨터는 어 디에 있어요? 제 컴퓨터는 책상 옆에 있어요.	Les mots monosyllabiques désignant les parties du corps
6	Nombres	친구들하고 한국어를 배워요.	N이/가 많다 ㄱ+ㄴ=ㄷ N1말고 N2 Lieu에서(particule locative scénique) N이랑/랑,N하고,N과/와 N1이랑/랑 N2, N1하고 N2, N1과/와 N2	숫자 1	가족 형제자매 한국 친구가 몇 명 있어요?	Les bonnes manières coréennes
7	Possessifs (appartenan- ce/filiation)	이건 누구 거예요?	N거(N의 것) N거예요? (=N 것이예요?) N의 제 것은→제 건 Verbes irréguliers en 르	소유	이건누구거예요? 제 건 어디에 있어요? 모르겠어요.	Usage d'appellatif en coréen
8	Préférences	어떤 음악을 좋아해요?	N을/를 좋아하다 -N이/가 좋다 N을/를 싫어하다	색깔	준석이의 꿈 어떤 음악을	Coutumes à table

			-N이/가 싫다 R은/ㄴ 어떤/무슨/어느 ㄱ + ㅏ = 가 Verbes irréguliers en ㅎ/ㅇ		좋아해요? 무슨 색을 좋아해요?	
9	Temps climatique (météo)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N이/가 어때요?/어떻습니까? ㅏ + ㅏ = ㅗ : 흐리다 → 흐려요 안(아니) vb. R+지 않다 Verbes irréguliers en ㅏ/우,오	부사1	오늘은 날씨가 흐려요. 그 대신 별로 춥지 않아요.	Hanok, la maison traditionnelle coréenne
10	Exprimer l'heure	지금 몇 시예요?	R+을/르 거예요./거예요? R+을/르 겁니다.(-까?) Heure: ㄹ시 ㅁ분 날짜: ㄴ년 ㄹ월 ㄴ일 X요일	숫자2 부사2 날짜 N 때문에	지금 몇 시예요? 같이 식사할 거예요?	Ondol
11	Fixer un rendez-vous	극장에 자주 가요?	N에 게/한테/께 (particule du C.O.I.) R+으러/러 가다/오다 Fréquence: -에 -번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Adv.) 자주, 가끔 매일 별로 등	날	마농의 하루 오후에는 뭐해요? 공원에 산책하 러 갈 거예요.	Jardins à la coréenne
12	En week-end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Passé: R+았/었 R+고 싶다/ㄹ고 싶지 않다 R+고 R+기로 하다 Verbes irréguliers en ㅏ/ㄹ Conjonctions et adverbe	(Adv) 조금 전에/이따가	어제 뭐 했어요? 내일은 남대문에 가기로 했어요.	Kimchi
13	Au restaurant	식당에 가려고 해요.	R+아서/어서 (nuance causale) Lieu에서 (particule locative de provenance) R+으려고/려고 하다 R+겠다 Verbes irréguliers en 으 배가 고프다 → 배가 고파요.	형용사	백화점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가요. 친한 친구가 저를 보러 왔어요.	Gimjang
14	Moyen de	뭐 타고	N을/를 타다	걸리다	이슬이의 외출	Hansik,

	transport	다녀요?	N을/를 타고 다니다 N으로/로(particule locative de direction: vers, à/particule de moyen: en, avec) N1이나/나 N2 (particule expriment le choix):N1 ou N2	(temps nécessaire)	지하철로 한 시간 걸려요. 한 번 갈아타요.	la cuisine coréenne
--	-----------	------	--	-----------------------	------------------------------------	------------------------

① 주제

「Apprenons le Coréen!」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사, 사물 이름, 직업과 국적 등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6과와 11과의 경우 주제, 기능, 대화문이 연결되지 않고 있다. 6과와 11과의 대화문은 다음과 같다.

제6과 친구들하고 한국어를 배워요.	
대화(Dialogue)	
해나	한국 친구가 있어요? 몇 명 있어요?
마농	두 명 있어요.
해나	그럼 한국 친구 말고 외국인 친구는 없어요?
마농	많아요. 그런데 미국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해나	외국인 친구들을 자주 만나요?
마농	네. 저는 학교에서 외국인 친구들하고 한국어를 배워요.

위의 대화문에서 보는 것처럼 ‘수’에 대해 다루고 있는 6과의 경우 제목이 ‘친구들하고 한국어를 배워요’라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목의 경우 학습자가 그 과에서 배우게 될 가장 중요한 표현을 나타내고, 제목을 통해 학습자가 배우게 될 내용을 유추하게 되는데 6과의 경우 제목과 그 과의 기능, 표현이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 또한 ‘수’를 표현하는 기능을 학습하기 위한 대화문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제11과 극장에 자주 가요?

대화(Dialogue)

니콜라 내일 뭐 해요?
해나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요. 같이 영화를 보러 갈 거예요.
니콜라 그래요? 무슨 영화를 볼 거예요?
해나 “당신에게 꿈을 선물합니다”를 볼 거예요.
니콜라 친구들이랑 극장에 자주 가요?
해나 우리는 보름에 한 번 극장에 가요.

11과의 경우에는 교수요목에 그 과의 기능이 ‘약속 정하기’로 되어 있지만 대화문은 내일 일과를 묻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목과 대화문이 그 과의 주제와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한 구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소통 상황은 대화 상대가 100% 친구사이로 설정되어 있고, 대화 장소도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는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대화 상대와 장소가 사회적인 범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면 의사소통 상황과 주제 또한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② 문법

「Apprenons le Coréen!」은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문법을 프랑스어로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법을 익히기 위해 적절한 예문을 프랑스어 번역과 함께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예문들은 다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프랑스어 문법과 비교,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Apprenons le Coréen!」의 문법 부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다음과 같이 축약형인 구어를 원형인 문어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Forme contractées (à l'oral)

<2과> 이것/그것/저것+은 → 이건/그건/저건

<3과> 무엇 → 뭣 → 뭉, 것 → 거, 이것/그것/저것+이 → 이게/그게/저게

<4과> 여기/거기/저기+는 → 여긴/저긴/저긴

<5과> 이것/그것/저것+을 → 이걸/그걸/저걸

<7과> 것이예요 → 거예요

이것은 → 이건, 그것은 → 그건, 저것은 → 저건, 제 것은 → 제건

이와 같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축약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어와 구어를 동시에 학습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그에 맞는 적절한 예문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③ 어휘

「Apprenons le Coréen!」은 새로운 어휘를 본문인 대화문 아래 단어 모음(Vocabulaire)에서 프랑스어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롭게 제시되는 어휘들이 주제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

3의 제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로 학습자가 그 과의 주제가 ‘국적’이고, 그와 관련된 어휘가 ‘나라 이름’임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과 “안녕하세요?”에서 본문에는 국적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표현(Expression)에서 30개에 달하는 나라 이름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1과에서 나라 이름과 관련된 어휘를 제시하다 보니 3과에서는 나라와 관련된 어휘를 다루지 않고, ‘직업이 뭐예요?’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인지 직업에 관련된 어휘를 32개나 제시하고 있다.

보다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어휘가 긴밀히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④ 발음

「Apprenons le Coréen!」에서는 별도의 “발음(Prononciation)” 부분을 두고 있다. 목표 단어와 발음이 명시되어 있어 학습자들은 표기된 단어와 발음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pprenons le Coréen!」에서 다루고 있는 발음들은 다음과 같다.

- <1과> 이름은[이르문], 이슬이에요[이스리에요], 반갑습니다[반갑쑤니다]
<2과> 책이에요[채기에요], 저것도[저견또], 한국어[한구거]
<3과> 사람이예요[사라미에요], 학생이에요[학쌩이에요], 직업이[지거비]
<4과> 학교예요[학꾜예요], 우체국이에요[우체구기에요],
찾습니까[찬쑤니까]
<5과> 지갑이[지가비], 있어요[이쑤요], 수첩도[수첩또], 수첩은[수처븐],
옆에[여페], 어떻게[어떠케]
<6과> 많아요[마나요], 없어요[업쑤요]
*많아요:나 se prononce comme [ㄴ]
<7과> 거예요[꺼예요], 잃어버려요[이러버려요]
<8과> 음악을[으마글], 좋아해요[조아해요], 음악이[으마기], 싫어요[시러요]
<<ㅎ>> ne se prononce pas entre deux voyelles, ou entre une
consonne nasale <<ㄴ>> ou la consonne liquide <<ㄷ>> et une
voyelle: 좋아해요[조아해요 joahaeyo], 앓아요[anayo]. 싫어해요
[sireohaeyo]
<9과> 불어요[부러요], 춥지[춥찌], 앓아요[아나요]
<10과> 연습이[연스비]
<11과> 약속이[약쏘기], 앞에서[아페서]
<12과> 주말에[주마레]. 일요일[이료일], 봤어요[봐쑤요], 했어요[해쑤요],
맛있었어요[마시쑤쑤요]
<13과> 찾집[찬쩍], 저녁에는[저녀게는], 좋겠다[죤켄따]
<14과> 학교에[학꾜에], 지하철이나[지하처리나], 갈아타요[가라타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Apprenons le Coréen!」의 발음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개별 단어들의 발음은 명시되어 있지만 발음기호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한국어의 일반적인 음운 규칙에 대한 설명은 서두인 “Le hanguel”에서 제시하고 있고, 개별 단어들의 음운 규칙에 대한 명시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발음 방법 또한 프랑스어와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다.

「Apprenons le Coréen!」에서는 교재의 뒷부분에 “Romanisation des dialogues”를 두어 본문의 대화를 전부 로마자로 표기하였다. 한국어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는 이러한 발음 표기의 방법이 자연스러운 발음 연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⑤ 문화

「Apprenons le Coréen!」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6> 「Apprenons le Coréen!」의 문화 항목

단원	문화 항목
1과	태극기, 가위 바위 보
2과	단군 신화
3과	고인돌, 속담(시작이 반이다), 생일 축하 노래
4과	한글의 철학, 장독대
5과	신체 부위를 지칭하는 단음절 단어, 속담(등잔 밑이 어둡다)
6과	인사 예절
7과	호칭, 속담(끼리끼리 모인다)
8과	식사 예절, 속담(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9과	한옥,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시(산유화)
10과	온돌, 속담(돈이 돈을 번다), 아리랑
11과	한국식 정원, 속담(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12과	김치, 요리법(쌀밥), 속담(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
13과	김장, 요리법(불고기), 속담(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
14과	한식, 한국의 가을, 속담(빛 주고 땀 맞는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Apprenons le Coréen!」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들은 주로 생활 문화와 언어 문화에 관한 것들로 다양한 문화 항목

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9과의 한옥과 10과의 온돌이나 12과의 김치와 13과의 김장, 14과의 한식과 같은 항목들은 하나로 묶어서 다루어도 좋을 것이다.

또한 각 과마다 소개하고 있는 문화 항목들이 그 과의 주제 또는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것들이다. 외국어 교재에서 문화 항목을 제시할 때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학습자가 이해하여할 필수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문화 항목의 선정에 있어서 주제와 보다 긴밀한 연결이 요구된다.

「Apprenons le Coréen!」에서 소개하고 있는 한국 문화의 경우 프랑스어권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충격과 거부감을 줄이기보다는 지식으로서의 문화 습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프랑스 문화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아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자국의 문화와 공통적인 면이나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방법도 설명 위주의 제시이고, 말하기나 쓰기와 연계된 과제 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Apprenons le Coréen!」의 문화 부분에서 주목할 점은 초급 단계에서 속담과 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담의 경우 프랑스어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단편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다. 속담은 한국인의 삶의 모습이나 지혜와 가치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유화와 아리랑과 같은 문학 작품을 소개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인 어휘에 대한 설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 작품들이 제시된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미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의 문학 작품을 접하였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접할 수도 있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해 작품에 나타난 어휘와 표현과 같은 기본적인 설명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 등 다른 영역의 활동들로 연계하는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⑥ 학습활동

「Apprenons le Coréen!」에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을 구분하여 학습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화(Dialogue)에서 CD 듣기를 통해 듣기를, 따라 읽기(Répéter à haute voix)를 통해 듣고 말하기를, 작

문(Thème)을 통해 쓰기, 받아쓰기(Dictée)를 통해 듣고 쓰기, 본문과 노래/시(Chanson/Poème)를 통해 읽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활동들이 실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보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많고 주로 문형연습이나 번역과 같은 것들이다.

또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활동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

「Apprenons le Coréen!」이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교재로서 갖는 가장 큰 특징은 학습 활동에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받아쓰기(Dictée)와 작문(Thème)을 중심으로 쓰기 활동이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받아쓰기(Dictée)가 효과적인 학습활동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프랑스의 경우 성·수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철자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작문에서 철자가 틀리면 문장이 좋거나 좋은 단어를 썼더라도 감점처리를 받는다. 이렇게 학습 과정에서 받아쓰기(Dictée)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받아쓰기(Dictée) 활동의 구성은 프랑스 학습자들이 철자법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3.2.2 「J'aime le Coréen!」

1) 교재의 구성

① 전체 구성

「J'aime le Coréen!」은 별도의 워크북 없이 주교재와 CD로 구성되어 있다. 주교재는 총 10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구성은 본 단원의 앞부분, 본 단원, 본 단원의 뒷부분으로 나뉜다. 본 단원의 앞에는 목차, 서문, 한글소개, 예비 학습에 해당하는 Hangeul 1,2,3과 연습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단원 뒷부분은 연습문제, 문법 메모, 본문의 프랑스어 번역, 정답, 문법 색인, 단어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단원 구성

「J'aime le Coréen!」의 각 단원은 ‘Dialogue’, ‘Vocabulaire’, ‘Grammaire et Expressions’, ‘Exercices’ 등 총 네 개의 부분으로 간단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2) 교재의 내용

「J'aime le Coréen!」에서 학습을 통해 익히는 문법과 표현 등을 정리하면 <표7>와 같다.

<표7> 「J'aime le Coréen!」의 주요 목표³⁶⁾

Leçon	Titre	Grammaire	Expression
1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이에요.	1. la particule de thème -은/는 2. le verbe 이다(être) 3. le terme de politesse -씨	1. dire bonjour 2. se présenter: donner son nom, sa nationalité, etc. 3. présenter quelqu'un
2	이게 뭐예요?	1. la particule de sujet -이/가 2. le présenter au style poli informel 아요/어요 3. le verbe 있다(exister) le verbe 없다 (ne pas exister) 4. les verbes irréguliers en “ㄴ” 5. les constructions à thème et à sujet 6. les démonstratifs 이/그/저	1. désigner une personne, un objet ou un endroit de façon appropriée 2. formuler des questions simple au style poli informel 3. exprimer une relation d'appartenance
3	저는 테니스를 좋아해요.	1. l'ordre des mots dans la phrase 2. la particule d'objet -을/-를 3. la marque de négation 안 4. la conjugaison du verbe	1. formuler une proposition au style poli informel 2. les verbes composés à partir de 하다 3. les jours de la semaine

36) 「J'aime le Coréen!」에서는 별도의 교수요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재 각 단원의 앞부분에 명시되어 있는 Principaux objectifs de la leçon으로 교수요목을 대체하였다. 각 단원의 구성과 어휘, 대화 내용 속에 포함된 기능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다 (faire) 5. la postposition temporelle -에	4. exprimer ce qu'on aime ou pas
4	‘서래 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1. les verbes irréguliers en “르” les verbes irréguliers en “ㅡ” 2. la marque de pluriel -들 3. les postpositions locatives -에 et -에서 4. la marque de politesse -요 5. la particule de possession -의	1. exprimer la localisation d'une entité ou d'une activité, la destination et la provenance 2. formuler des questions avec des interrogatifs comme 뭐(quoi), 어디에(où), 어떻게(comment) ... 3. s'excuser et pardonner
5	만수 씨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1. les numéraux coréens et sino-coréens, et leurs usages 2. les classificateurs 3. -한테 et -한테서	1. téléphoner 2. utiliser les numéraux: donner son âge, l'heure, un prix, compter, etc. 3. exprimer une envie(-고 싶다)
6	5월 6일에 시간 있어요?	1. les négations avec 안 et 못 2. les verbes irréguliers en "ㅎ" 3. les pronoms et leurs équivalents	1. fixer un rendez-vous 2. donner la date et l'heure 3. exprimer sa disponibilité avec les verbes 되다 ou 괜찮다 4. demander un avis avec le verbe 어떻다
7	어제 뭐 했어요?	1. le passé au style poli informel -았어요/었어요 2. les verbes irréguliers en "ㄷ" 3. la coordination verbale(-고) et nominale(-하고, -(이)랑, -와/과)	1. utiliser les conjonctions formées à partir du verbe 그렇다: 그리고, 그런데 ... 2. récapitulatif de principaux interrogatifs
8	저는 비빔밥 주세요.	1. l'fixe honorifique -(으)시- 2. la particule de sujet honorifique -께서, d'objet indirect honorifique -께 3. l'usage semi-auxiliaire du verbe 주다 4. les adverbes de manière se terminant par -게 5. le présent progressif (-고 있다)	1. passer une commande dans un restaurant 2. formuler poliment des phrase impératives 3. savoir utiliser les verbes et les noms honorifiques 4. saluer dans différentes circonstances
9	내일은 뭐 할거예요?	1. le futur au style poli informel -(으)ㄹ 거예요 2. le coordinateur nominal	1. formuler une proposition -(으)ㄹ까요? 2. formuler un futur

		-(이)나 (ou) 3. 아무, -도 4. les comparatives, les superlatives	"d'intention" -(으)르래요 3. formuler un futur "de promesse" -(으)르게요 4. exprimer dans quelle mesure on apprécie quelque chose
10	뭐 하시겠습니까?	1. le style poli formel(présent, passé, futur: à toutes les formes) -습니다/하니다 etc. 2. les impératives et propositions négatives -지 말다 3. l'infixe dit "de futur"(intention, supposition)-겠- 4. le suffixe verbal exprimant la cause -아서/어서	1. s'exprimer dans une cadre formel 2. s'adresser à un adulte coréen et le désigner 3. interpellier un inconnu

① 주제

「J'aime le Coréen!」의 주제는 음식 주문, 전화 통화, 상사와의 대화 등으로 다양하며,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었다.

「J'aime le Coréen!」은 각 단원의 기능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단원의 구성과 어휘, 대화 내용 속에 포함된 기능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제목과 대화 내용을 통해 유추한 과제 기능들은 대체로 주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식당에서 주문하기, 전화 통화로 다른 사람 전화 번호 알려주기, 사무실에서 직장 상사와 대화하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대화 장소도 식당, 공원, 집, 회사, 버스 정류장, 비행기 안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다. 대화 장소가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 상대도 친구 사이인 미애, 에릭, 지선의 대화 외에도 식당 종업원, 직장 상사, 스텐더디스 등과의 대화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② 문법

「J'aime le Coréen!」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새로운 문법을 프랑스어로 매

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적절한 예문을 프랑스어 문장과 함께 제시하여 다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학습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J'aime le Coréen!」 이 다른 교재들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부분을 프랑스어와 대조하여 교재에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다음은 교재에 명시되어 있는 주어 생략과 목적어 생략에 관한 부분이다.

<1과> Omission du sujet

Contrairement au français, en coréen, lorsque le sujet (ou le thème) de la phrase est facilement identifiable grâce au contexte, on l'omet très fréquemment.

A: 요즘 잘 지내요? Comment allez-vous ces jours-ci?

B: 잘 지내요. Je vais bien.

<3과> Omission de l'objet

Comme pour le sujet, l'objet de la phrase tombe fréquemment en coréen, à condition que l'objet omis soit facilement identifiable grâce au contexte. Typiquement, dans un échange de dialogue, l'omission de l'objet est fréquente dans les réponses; très souvent, on répond en ne reprenant que le verbe, sans répéter son objet.

– 미애 씨는 운동 좋아해요?

Aimez-vous le sport, Miae?

– 네, (운동) 좋아해요.

Oui, j'aime (le sport).

– 무슨 요일에 테니스 쳐요?

Quel jour de la semaine jouez-vous au tennis?

– 보통 일요일에 (테니스) 쳐요.

D'ordinaire, je joue (au tennis) le dimanche.

한국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이 빈번히 일어나는 한국어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이러한 현상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나 상대적으로 한국어의 노출이 적은 프랑스어권 학습자에게는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이 초급의 경우에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 요소일 것이다.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에 대해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실제 발화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대한 명시적 설명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은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가장 큰 차이점인 어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3과> **Ordre des mots**

Dans une phrase à "prédicat adjectif"(i.e. combinaison du verbe être et d'un adjectif), l'ordre des mots est identique en français et en coréen. C'est l'ordre Sujet-Prédicat.

Remarque: en coréen, il y a très peu d'adjectifs à proprement parler; il s'agit plutôt de verbes qui se traduisent en français par "être+adjectif", comme par exemple 길다 (être long)

Sujet

Le film

Prédicat adjectif

est long.

Suj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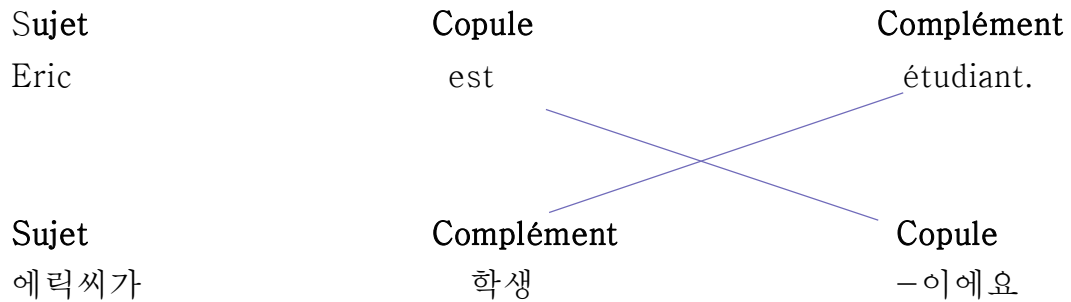
영화가

prédicat adjectif

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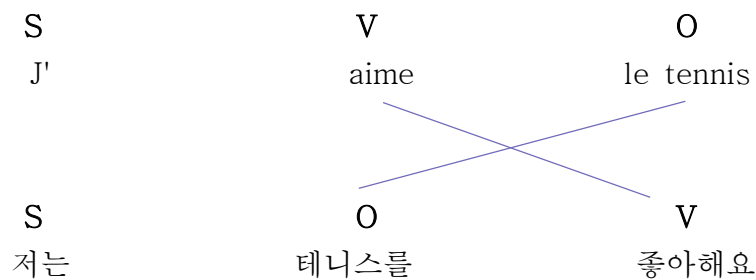
Nous avons déjà vu que dans une phrase avec le copule 이다 (être), l'ordre des mots en coréen est différent de l'ordre en français. En français, l'ordre est Sujet-Copule-Complément, alors qu'en coréen,

l'ordre correct est Sujet–Complément–Copule.



En outre, 이다(être) s'agglutine au complément qui le précède, à la différence de "être" en français.

Dans une phrase avec un objet (au sens large: objets directs, indirects, compléments circonstanciels...), l'ordre des mots en française et en coréen est également différent. L'ordre de base est Sujet–Verbe–Objet(SVO) en française, mais l'ordre est Sujet–Objet–Verbe(SOV) en coréen.



– 에릭 씨가 미애 씨를 좋아해요.

Eric aime bien Miae.

– 미애 씨가 친구를 만나요.

Miae rencontre un(e) ami(e).

– 미애 씨가 테니스를 쳐요.

Miae joue au tennis.[lit, frapper(la balle de) tennis.]

또 다른 특징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경어법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에는 높임을 나타내는 어휘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8과> Noms honorifiques

Il existe aussi des noms honorifique. En voici quelques-uns:

	nom neutre	nom honorifique
parole	말	말씀
nom	이름	성함
âge	나이	연세
anniversaire	생일	생신
masion	집	댁
repas	밥	진지

– 미애 씨, 밥 먹었어요?

Miae, avez-vous mangé?

– 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Père, avez-vous mangé?

– 미애 씨, 생일이 언제예요?

C'est quand, votre anniversaire, Miae?

– 미애 씨 아버님 생신이 언제예요?

C'est quand, l'anniversaire de votre père, Miae?

Pour le père et la mère d'autrui, on emploie plus facilement les terms 아버님(“père” honorifique) et 어머님(“mère” honorifique) que 아버지(“père”) et 어머니(“mère”).

이와 같이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어순의 차이와 경어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학습자들이 그에 대한 직관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어휘

「J'aime le Coréen!」에서도 어휘 부분을 본문인 대화문 바로 아래의 단어모음(Vocabulaire)에서 프랑스어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새롭게 제시된 어휘들은 각 과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또한 본문에 제시된 어휘들과 연관된 어휘들을 별도로 제시하여 어휘의 확장을 돕고 있다.

9과의 경우 외국어에서 유래한 어휘들을 설명하면서 프랑스에서 유래한 랑데부, 아틀리에, 란제리, 앙상블과 같은 어휘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도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프랑스어가 한국어로 어떻게 표기되는 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④ 발음

「J'aime le Coréen!」은 본문에 새롭게 제시되는 어휘에 대한 별도의 발음 표기를 명시하지 있지 않다. 음운규칙은 예비학습에 해당하는 “Hanguel 1,2,3”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만 각 단원에서 발음에 다루고 있지 않다보니 음운규칙 또한 각 단원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예비학습에서 자음과 모음의 발음 방법을 프랑스어와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l]과 [r] 발음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r]의 발음이 프랑스어 “r”과 같지 않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La Lettre **ㄹ** a en fait deux prononciations, [l] et [r]. **ㄹ** se prononce [r] quand il est entre deux voyelles et [l] quand il est suivi d'une consonne ou en position finale. **Attention, le son [r] est proche du "r" italien ou espagnol, et pas du "r" français.**

또한 예비학습이 끝나면 CD로 듣고 음운현상에 따라 발음 나는 대로 받아 쓰는 활동을 하도록 하였는데, 각 단원에서도 개별 어휘들에서 발생하는 음운 현상들에 대한 명시적 설명이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⑤ 문화

「J'aime le Coréen!」에서는 교재에 별도의 문화 부분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문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8> 「J'aime le Coréen!」의 문화 항목

단원	문화 항목
1과	혈액형, 띠, 한국인의 성
2과	
3과	
4과	서래 마을, 방배동, 서울
5과	화폐 단위, 냉면
6과	
7과	부산, 김밥
8과	비빔밥, 경어법, 한국의 음식(불고기, 갈비, 회덮밥, 된장찌개, 김치 찌개, 순두부찌개), 인천, 막걸리
9과	종로
10과	호칭

「J'aime le Coréen!」에서 제시된 문화 항목은 주로 생활 문화에 관한 것들로 다양한 문화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원의 주제나 본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낯설어 하는 호칭이나 경어법 같은 경우에는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서래 마을’처럼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문화 항목으로 본문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맞춤 교재의 개발에서 활용해 볼 만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재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실제 한국 생활에

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0과> Interpeller un inconnu

Pour interpeller un(e) inconnu(e), on peut utiliser les expressions suivants:

아주머니	Madame, ...	[lit. tante]
아저씨	Monsieur, ...	[lit. oncle]
아가씨	Mademoiselle, ...	[lit. jeune fille non mariée]
총각	Jeune homme, ...	[lit. jeune homme non mariée]
할아버지	Monsieur, ... (lorsque la personne semble âgée)	[it. grand-père]
할머니	Madame, ... (lorsque la personne semble âgée)	[lit. grand-mère]
실례지만, ...	Excuse-mois, mais ...	
실례지만요, ...	Excuse-mois, mais ...	
여기요, ...	S'il vous plaît, ...	(le plus souvent dans un restaurant)
저기요, ...	S'il vous plaît, ...	

그러나 교재에 제시된 문화 항목들을 프랑스 문화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고, 한국 문화를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⑥ 학습활동

「J'aime le Coréen!」은 학습활동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본문에 제시되는 문법과 표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활동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문과 연습 문제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학습활동들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활동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지 않다. CD를 통해 본문의 대화(Dialogue)를 듣는 것으로 듣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프랑스어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다음에 이어질 대화를 예상하도록 하고, 두 번째에는 상황 설명 없이 대화가 진행된다. 「J'aime le Coréen!」의 대화문에는 머뭇거림, 말 줄임 등과 같이 실제 발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반영하고 있어 대화가 어색하지 않고 현실적이다.

다른 활동들은 교재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Exercise를 통해 각 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도록 하였는데 이때의 활동들은 말하기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쓰기는 어순에 맞게 배열하기와 동사를 변형하는 활동 등이어서 진정한 의미의 쓰기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읽기 활동 역시 교재에 제시된 텍스트가 본문의 대화문뿐이어서 보다 다양한 활동들을 균형있게 포함하면 좋을 것이다.

3.2.3 「Cours de Coréen」

1) 교재의 구성

① 전체 구성

「Cours de Coréen」은 주교재에 해당하는 「Cours de Coréen」과 워크북에 해당하는 「Cours de Coréen:Cahier d'exercices」, CD로 이루어져 있다. 주교재는 총 20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구성은 본 단원의 앞부분, 본 단원, 본 단원의 뒷부분으로 나뉜다. 본 단원의 앞에는 서문, 일러두기, 내용 구성표, 차례로 구성되어 있다. 본 단원에서는 1, 2과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의 발음, 결합 원리 및 쓰는 법 등을 배우는 예비 학습을 거친 뒤, 3과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기본 문장들을 학습하게 된다. 본 단원 뒷부분인 부록에서는 정답, 듣기 대본, 문법과 표현 번역, 문화와 사회 번역, 색인 등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② 단원 구성

「Cours de Coréen」의 각 단원은 두 개의 대화문과 한 개의 읽기로 구성된 ‘본문’, ‘문법과 표현’, ‘연습 1’, ‘연습 2’, ‘문화와 사회’등 총 다섯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과의 본문 하단에는 새로운 단어와 발음을 넣었다.

2) 교재의 내용

「Cours de Coréen」에서 학습을 통해 익히는 기능과 어휘, 문법 등을 정리하면 <표9>와 같다.

<표9> 「Cours de Coréen」의 교수요목³⁷⁾

Leçon	Actes de parole	Vocabulaire	Grammaire et Expressions	Culture et Société
1. Alphabet coréen <<Hangeul>>	Prononciation des voyelles et des consonnes	voyelles, consonnes	Présentation du Hangeul:prononciation et écriture	한국 개요 La Corée du sud en bref
2. Syllabes: construction et règles de prononciation	Construction et prononciation des syllabes	Quelques mots et expressions de base	Constrcution des syllabes et règles de prononciation	한글 Hangeul, alphabet coréen
3. 저는 모르간이에요. (Je m'appelle Morgane.)	Se présenter, saluer	Les salutations, nombres	• NOM+은/는 • NOM1+은/는 NOM2이에요/예요 (NOM1=NOM2) • Nom du pays, Nationalité • Omission du sujet • 반갑습니다 • 이름이 뭐예요? • 아, 그래요? • Nombres 1~10 • 선생님	한국의 성 Les noms coréens

37) 「Cours de Coréen」의 내용 구성표(Tableau des contenus) 인용.

4. 이분이 누구예요? (Qui est cette personne?)	Demander à quelqu'un son identité, demander et dire la nationalité	Noms de métiers, nationalité	• 이분이 누구예요? • (NOM+) Prénom+씨 • 처음 뵙겠습니다 • Utilisation des noms en remplacement des pronoms personnels • Phrase déclarative /Phrase interrogative • 네/아니요 • NOM+도 • Nom du pays, nationalité, langue • (NOM1+은/는)NOM2+이/가 아니예요 • 이게 뭐예요?	한류 Hallyu
5. 오늘 시간이 있어요? (Avez-vous du temps aujourd'hui?)	Demander l'avis de quelqu'un, exprimer la possession/non possession	Verbes pour décrire l'état, nombres	• NOM+이/가 particule de sujet VS NOM+은/는 particule auxiliaire • NOM+이/가 있어요/없어요 • Terminasion finale -아요/어요(1) • N O M 1 + 하 고 +NOM2 • NOM!+이/가(은/는) 어때요? • 그러면 (그럼) • 그리고 • NOM+의 • Nombres 10~100	대학 생활 vie universitaire
6. 요즘 뭐 해요? (Que faites-vous ces jours-ci?)	Commander une boisson, dire ce qu'on fait	Noms de bossoins, verbes pour exprimer les actions	•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 전(저는)+NOM+주세요 • NOM+을/를 • Terminasion finale-아요/어요(2) • 그런데 • 뭐 • -에서	서울의 전통문화 Tradition à Seoul
7. 지금 어디에 가요? (Où allez-vous maintenant?)	Demander l'avis de quelqu'un, commander des plats, exprimer	Les mots de démonstratif, les repas	• Nom de lieu +에 가다/오다 • 어떻게 지내요? • 어디 • 좋아요	서울의 젊은이들의 장소 Quartiers des

			• -에서 vs -에서(lieu) • NOM de lieu +에 있다/없다 • 이/그/저+NOM • 어머+어머나 • 안 • Verbe irrégulier ㅂ	jeunes à Seoul
8. 지금 몇 시예요? (Quelle heure est-il maintenant?)	Demander et dire où on va, décrire un journée, exprimer les habitudes	Les mots pour dire l'heure, les moments de la journée	• Jours de la semaine • Nombres sino-coréens /nombres coréens • -에 (temps) • 언제 • 몇 시예요? • 몇 월 며칠이에요? • 글썽요 • 밥을 먹다 • ~부터~까지	식사 시간 L'heure du repas
9. 여보세요? (Allô.)	Demander et donner des informations, demander le prix de quelque chose	Expressions téléphoniques, verbes combinés avec 하다	• Conversations téléphoniques :expressions courants • NOM1와/과 NOM2 =NOM1(이)랑 NOM2 =NOM1하고 NOM2 • NOM de personne+에게 • Verbes combinés avec 하다 • NOM+이/가 얼마예요? • Classificateurs • Nombres 100~100,000,000 • -에 (unité)	쇼핑 Shopping
10.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Qu'est-ce que vous avez faites le weekend dernier?)	Parler d'événements passés, demander et indiquer les moyens de transport	Les mots pour exprimer le passé, les mots pour les moyens de transport	• Le Passé • -들 • ~에서 ~까지 • 어떻게/-(으)로 (moyen) • 길이 많이 막혀요 • 얼마나 (걸려요)? • NOM+을/를 타다 • Verbe irrégulier ㅈ	대중 교통 Les transports en commun
11. 내일 뭐 할 거예요? (Qu'est-ce que vous ferez demain?)	Parler d'événements futurs, demander son chemin	Les mots pour exprimer le futur, l'orientation dans l'espace	• Le futur • Locatifs • 누구 • 왜(요)? • Radical du verbe	집에 들어 갈 때 En entrant dans la maison

			+고=그리고 • Verbe irrégulier — • 하지만=그렇지	
12. 파리 날씨가 어때요? (Quel temps fait-il à Paris?)	Demander et donner des informations sur le temps qu'il fait, demander l'avis de son interlocuteur, exprimer le désir	Les mots pour exprimer la météo	• Expressions de la météo • Radical du verbe d'action+고 싶다 •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 Radical du verbe d'action+(으)르래요? • 한테, 에 게/한테서, 에 게서 • Terminasion finale -(스)버나다(스)버나까? • Omission de 르	한국의 사계절 Les saisons en Corée
13. 줄리앵 씨 가 죽은 모두 라 로셀에 사세요? (Julien, toute la famille habite à La Rochelle?)	Exprimer de l'étonnement, exprimer le respect, demander de choisir entre plusieur réponses	Les mots pour exprimer la famille, les honorifiques	• Nom de lieu+에서 오다 • 그래서 • Radical du verbe +네요 • Termes honorifiques • Infixe honorifiques (으)시 • 물론이죠 • 어느 • 모두/다 • -만 • Appellatiifs de la famille	공경 사상 Le respect aux personne plus âgées
14. 레오 씨는 취 미가 뭐예요? (Léo, quels sont vos loisirs?)	Exprimer des goûts et des préférences /exprimer la capacité /l'incapacité, exprimer la possibilité /l'impossibilité	Les loisirs (le cinéma, la musique, le sport)	• Radical du verbe d'action+(으)르줄 알다/모르다 • Radical du verbe +아서/어서(1)=그래서 • Radical du verbe +(으)르수 있다/없다 •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 테니스를 치다 • 어떤 • Loisirs	노래방 Noraebang
15. 감기에 걸렸어요. (Je suis enrhumé)	Demander des explications, exprimer	Le corps humain, les mots qu'on	• Nom de la partie du corps+이/가 아프다 • Expressions à utiliser	한의학과 재래시장 Médecine et

	l'obligation/la cause /le but, donner des conseils	utilise quand on est malade	quand on est malade • Radical du verbe +지만=하지만 그렇지만 • 하루에 두 번 • 못 • Radical du verb +아/어야 되다(하다) • Radical du verbe d'action +(으)러 가다/오다 • Radical du verbe d'action+아서/어서(2) • Verbe irrégulier 스	marchés traditionnels
16. 요즘 빨간색 티셔츠가 유행이에요. (Ces derniers temps, Ce-T-shirt rouge est à la mode.)	Demander l'avis de quelqu'un, donner des conseils, faire des hypothèses, comparer des personnes et des choses	Les vêtements, les couleurs	• 어서 오세요 • 그저 그래요 • Couleurs • Radical du verbe d'action+아/어 보다 • Expression pour les vêtements et les chaussures • 신다/끼다/쓰다 /하다/입다 • NOM+와/하고 /이랑 어울리다 • 사이즈가 얼마예요? • Radical du verbe +지 않다 • Le comparatif et le superlatif • Radical du verbe +(으)면	한국의 색 La Corée et la couleur
17. 면접시험을 보러 가요. (Je vais passer un entretien d'embauche)	Exprimer la probabilité, se justifier, prendre la défense, exprimer sa compétence	Les mots qu'on utilise quand on passe un entretien d'embauche	• Verbe irrégulier 르 • -요 • 알겠습니다 • NOM temporel + 전에/후 • NOM+밖에 • NOM+에 관심이 있다/없다/많다 • Radical du verbe d'action +고 있다 • 다니다	첫 만남과 존대법 Entretien, recontre et registre linguistique

			• Construction correspondante au pronom relatif du français	
18. 명절에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Il y a beaucoup de gens qui portent le Hanbok pendant la fête traditionnelle.)	Exprimer de l'étonnement, exprimer une appréciation, exprimer la probabilité /la volonté/l'obligation, demander et donner une autorisation	Fêtes traditionnelles, les repas	• 무슨 • NOM+때 • 그저께(그제), 어제, 오늘, 내일, 모레 • Radical du verbe + (으)ㄴ+때 • Quelques expressions utiles pour les deux grandes fêtes traditionnelles • Radical du verbe + (으)ㄴ테/는데 • Radical du verbe d'action+(으)ㄴ까하다 • 우리 • Radical du verbe + (으)ㄴ게요 • Récapitulatif de -고 싶다-(으)ㄴ까하다 - (으)ㄴ래요, -(을)게요	생일 잔치 La fête d'anniversaire
19. 우리 언제 부산으로 출발할까요? (Quand est-ce qu'on part pour Busan?)	Parler d'événements futurs et d'événements récents, demander des explications, rappeler à quelqu'un ce qu'il doit faire	Les activités de vacances, s'orienter dans l'espace	• NOM+(으)로(direction) • Radical du verbe + (으)ㄴ까요? • 왜냐하면 • -겠 • NOM du temps +을/를 보내다 • 네/아니요 • -게 • 덕분에/ 때문에	축제 Les festivals
20. 이사하는 게 안 힘들었어요? (Déménager n'était pas difficile?)	Discuter du prix de quel que chose, exprimer le mécontentement	Le déménagement, caractériser un personnage	• Radical du verbe d'action+는 것 • Radical du verbe de description +아/어 보이다 • Radical du verbe d'action+았/었더니 • Expressions pour décrire la personne • Radical du verbe	단군 신화 Le mythe de Dan'gun

			d'action+기로 하다 • 등 • NOM+에 대해 이야기하다(말하다)	
--	--	--	--	--

① 주제

「Cours de Coréen」의 주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존의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는 면접, 이사와 같은 주제들은 실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의사소통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대체로 각 단원의 주제와 기능들이 관계가 있지만 몇몇 단원에서 제목과 주제,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 7과의 경우 제목이 “지금 어디에 가요?”로 되어 있는데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과의 주요 기능이 음식 주문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7과> 지금 어디에 가요?

대화2

(La pièce de théâtre est finie. Marie et Pierre sont entrés dans un restaurant coréen.)

마리	피에르 씨는 연극을 자주 봐요?
피에르	아니요, 가끔 봐요. 저는 영화를 자주 봐요.
마리	어머, 저도 영화를 자주 봐요.
종업원	주문하시겠어요?
피에르	네. 여기 비빔밥이 매워요?
종업원	네. 조금 매워요. 그런데 맛있어요.
마리	불고기는 어때요?
종업원	여기는 불고기가 유명해요. 그리고 안 매워요.
마리	그럼, 저는 불고기 주세요.

피에르	전 비빔밥 주세요.
종업원	네, 감사합니다.
마리	어머, 저기에 레오가 있어요.
피에르	레오가 누구예요?
마리	제 친구예요.

10과의 경우도 제목이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이지만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통편을 설명하고 있다.

<10과>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대화 2

(오늘 모르간은 예술의 전당에 가요. 상준 씨와 약속이 있어요.)

모르간	레오 씨, 여기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어떻게 가요?
레오	지하철로 가세요.
모르간	버스는 없어요?
레오	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길이 많이 막혀요. 지하철이 편해요.
모르간	그럼, 지하철로 얼마나 걸려요?
레오	30분쯤 걸려요.
모르간	지하철 몇 호선을 타요?
레오	지하철 3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남부터미널 역에서 내리세요. 거기에서 예술의 전당까지 걸어서 5분 걸려요.

「Cours de Coréen」의 주제가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보니 친구 사이의 대화 상황이 가장 많이 설정되어 있고, 주로 줄리앵, 모르간, 사미라, 레오 등 한국에 유학 온 프랑스권 학생들과 한국의 대학생인 박상준, 김민정의 대화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6과의 찻집 종업원과의 대화, 7과의 식당 종업원과의 대화, 15과의 병원과 약국에서의 대화, 17과의 택시 기사와 면접관과 대

화하는 상황은 프랑스어권 학생들이 사회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도움을 줄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대와 의사소통하는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7과의 마리와 피에르의 대화, 9과의 모르간과 레오의 대화, 11과의 줄리앵과 사미라의 대화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한국에 유학 온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인물들이 익숙하지 않은 한국어로 대화하는 상황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 학생들의 대화 상황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다른 언어권에서 온 유학생을 등장인물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② 문법

「Cours de Coréen」은 본문에서 접하게 되는 주요 문법 사항들을 한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프랑스어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문법을 다양한 예문과 함께 제시하여 학습자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문법 설명이 프랑스어와 대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ours de Coréen」의 문법은 문어보다는 구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어권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경어법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의 동사 활용표와 적절한 예문을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Cours de Coréen」의 문법 제시 방법은 한국어 학습에 꼭 필요한 문형을 습득하여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③ 어휘

「Cours de Coréen」에서는 새롭게 제시된 어휘를 본문 하단의 ‘단어’에서 프랑스어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어 별도의 사전 없이 학습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어휘들은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어서 학습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접하게 될 때 활용 가능한 것들이다.

ㄷ ㅈ>> dans la syllabe précédente ou suivante, la prononciation de ces consonnes ordinaires se transforme en aspirées. <<ㄱ ㄷ ㄷ ㅈ>> se prononcent <<ㄱ ㅌ ㅊ ㅈ>>.

예) 영어 수업하고 [영어 수어파고] 좋다 [조타] 많다 [만타]
외국 학생이 [외구 각쌩이] 괜찮다 [괜찬타] 책하고 [채카고]

<8과> Palatalisation

Quand les consonne finale <<ㄷ ㅌ>> rencontre 이 de la syllabe suivante, ces consonnes finales se prononcent <<ㅈ ㅊ>>.

예) 같이 [가치] 굳이 [구지] 붙이다 [부치다]

<15과> Latéralisation

Quand la consonne finale de la syllabe précédente <<ㄴ>> rencontre <<ㄹ>> qui est à la consonne initiale de la syllabe suivante ou quand la consonne finale de la syllabe précédente <<ㄹ>> rencontre <<ㄴ>> qui est à la consonne initiale de la syllabe suivante, la consonne <<ㄴ>> se prononce comme <<ㄹ>>

예) 진료 [질료] 벽난로 [병날로]

「Cours de Coréen」에서는 예비학습에 해당하는 1과에서 한글 자음과 모음의 발음 방법을 발음기관의 그림과 프랑스어의 발음 방법과 함께 대조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실제로 발음할 때의 입술 모양에 대한 사진, 연습 문제 등을 제시하여 앞의 교재들과 비교하였을 때 예비학습에서부터 발음 교육에 비중을 크게 두었다고 할 수 있다.

⑤ 문화

「Cours de Coréen」에서는 별도의 문화와 사회 부분을 두어 문화 요소들을

사진과 함께 프랑스어로 설명해 놓았다. 문화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읽기 자료에서도 다양한 문화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데 「Cours de Coréen」에서 다루고 있는 문화 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10> 「Cours de Coréen」의 문화 항목

단원	문화 항목
1과	한국 개요
2과	한글
3과	한국의 성
4과	박경리, 김영하, 전도연, 조수미, 한류
5과	대학 생활
6과	인사동, 서예, 서울의 전통문화
7과	대학로, 비빔밥, 불고기, 서울의 젊은이들의 장소
8과	식사 시간
9과	쇼핑
10과	예술의 전당,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 역, 대중 교통
11과	집에 들어 갈 때
12과	한국의 날씨와 계절, 한국의 사계절
13과	공경 사상
14과	노래방
15과	한의학과 재래시장
16과	한국의 색
17과	삼성동, 첫 만남과 존대법
18과	추석, 한복, 차례, 송편, 세배, 떡국, 음력, 돌잔치, 돌잡이, 생일잔치
19과	부산, 강원도, 설악산, 백담사, 속초, 낙산, 경포대, 축제
20과	집들이, 회식, 단군 신화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Cours de Coréen」에서는 각 과의 주제와 관련하여 비교적 여러 문화 항목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프랑스어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한류, 대학 생활, 서울의 젊은이들의 장소, 노래방 등 프랑스어권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한국 젊은이들의 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경사상, 존대법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특히 집에 들어 갈 때 신발을 벗는 것, 첫 만남에서 나이를 묻는 것 등 실제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인을 만나거나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될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 한국 문화에 대해

미리 이해하고, 문화적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 부분의 텍스트는 프랑스의 문화와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프랑스어로 설명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과제 활동으로 연계하여 프랑스의 문화 현상과 비교 가능하도록 하였다.

<2과> 여러분의 모국어를 소개해 보세요.

(예를 들면 어족, 자음 및 모음의 수 등에 대해서)

<3과> 여러분의 나라에 가장 많은 성 세 개와 널리 쓰이는 이름 세 개를 얘기해 보세요.

<5과> 여러분 나라의 대학 학제와 한국의 대학 학제를 비교해 보세요.

<6과> 여러분 나라의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 세 군데를 소개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전통문화를 관람할 수 있는 도시의 한 지역이나 도시 하나를 소개해 보세요.

<7과>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보세요.

<9과>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시장을 소개해 보세요.

한국의 화폐 단위와 여러분 나라의 화폐 단위를 비교해 보세요.

<10과> 여러분 나라의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나 여러분 나라의 지하철을 소개해 보세요.

<11과> 여러분 나라의 난방 방식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나라의 전통 가옥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12과> 여러분 나라의 계절과 한국의 계절을 비교해 보세요.

<13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가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식사할 때의 식탁 예절과 어떠한 점이 다른가요?

<16과> 여러분 나라를 상징하는 색을 소개해 보세요.

<18과> 여러분 나라의 전통에 따르면 몇 번째 생일 때 가장 큰 잔치를 하나요?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 나라의 생일잔치에서 특이할 만한 것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19과> 여러분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를 소개해 보세요.

<20과> 여러분 나라의 건국 신화가 있나요? 있다면 그 신화를 소개해 보세요.

이와 같이 다양한 문화 항목을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하고, 프랑스 문화와 비교·대조하여 다른 영역의 활동으로까지 연계하는 구성은 앞으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 참고해 볼만하다고 할 것이다.

⑥ 학습활동

「Cours de Coréen」의 주교재에는 연습 1 문법과 표현, 연습 2 듣고 말하기로 구분되어 있고, 부교재에 읽기와 쓰기가 있어 다양한 활동들이 통합적인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활동들은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것들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활동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다.

「Cours de Coréen」은 앞서 분석한 교재들에 비해 쓰기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부교재인 Cahier d'exercices에 나타나는 쓰기 활동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과> 여보세요?

제시된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써 보세요.

Rédigez un utilisant les mots proposés.

(전화하다 만나다 세일하다 쇼핑하다 사다 백화점 카페)

<15과> 감기에 걸렸어요.

제시된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Écrivez un texte en recourant aux images proposées.

<17과> 면접시험을 보러 가요.

당신은 무역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학업과 능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사동기서를 작성해 보세요.(200 단어 내외)

Vous voulez travailler dans une entreprise d'import-export. Écrivez une

lettre de motivation en indiquant vos études et compétences(environ 200 mots).

앞의 두 교재는 쓰기 초기 단계의 과제인 한국어 문법과 문맥에 맞게 정확하게 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Cours de Coréen」에서는 기계적인 쓰기 연습인 통제된 쓰기에서 유도된 쓰기를 거쳐 자유로운 쓰기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쓰기 활동의 구성은 다른 언어 기능과 연계된 통합적인 활동으로 확장할 수 있고, 작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3 분석 결과

이상으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어 초급 교재 3종을 비교·분석하여 본 결과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교재의 구성

① 전체 구성

「Apprenons le Coréen!」, 「J'aime le Coréen!」, 「Cours de Coréen」의 전체 구성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단원의 '수'라고 할 수 있다.

「Apprenons le Coréen!」과 「J'aime le Coréen!」의 경우 각각 14과와 10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Cours de Coréen」은 총 24과로 구성되어 있어 초급 학습자가 소화하기에는 학습량이 많은 편이다. 전체 구성을 본 단원의 앞부분, 본 단원, 본 단원으로 뒷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그 구성은 세 권의 교재가 유사한 편이다. 「Cours de Coréen」의 경우 국내 대학기관의 언어교육원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와 구성면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느낌을

주는 부분도 있으나 「Apprenons le Coréen!」, 「J'aime le Coréen!」에 비하여 다양한 삽화와 사진들이 포함되어 학습자의 흥미를 끌고 지루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구성된 점이 돋보인다.

② 단원 구성

단원 구성은 「J'aime le Coréen!」이 'Dialogue', 'Vocabulaire', 'Grammaire et Expressions', 'Exercices' 등 총 네 개의 부분으로 가장 간단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며 「Cours de Coréen」은 여기에 '문화와 사회'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Apprenons le Coréen!」은 속담, 받아쓰기, 따라읽기, 노래/시 부분이 더해져 다른 초급 교재들에서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단원의 주제 또는 내용과 연관이 되지 않아서 각 단원의 요소들이 보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필요가 있다.

2) 교재의 내용

① 주제

「Apprenons le Coréen!」, 「J'aime le Coréen!」의 경우 국내 대학 기관의 언어교육원에서 개발된 한국어 교재에서 나타나는 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에 비해 「Cours de Coréen」은 프랑스어권 학습자에게 유용한 주제와 기능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Apprenons le Coréen!」의 경우에는 주제가 과제 기능과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보이고 있으며, 의사소통 상황과 대화 상대자도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J'aime le Coréen!」과 「Cours de Coréen」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상황까지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이 설정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상황이 다양하다 보니 대화 상대자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의사소통 상황이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놓일 수 있는 상황과 공통된 부분이 많아서 의사소통 상황과 등장인물의 설정이 현실적이다. 주제 면에서 본다면 「Cours de Coréen」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배려한

다양한 주제의 설정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 교재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② 문법

「Apprenons le Coréen!」, 「J'aime le Coréen!」, 「Cours de Coréen」 모두 문법 설명을 프랑스어로 자세히 하고 있으며, 적절한 예문을 들어 다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어와 비교·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교재는 「J'aime le Coréen!」 뿐이다. 「J'aime le Coréen!」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 어순의 차이, 경어법 등을 프랑스어와 비교하여 매우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독학용 교재로 활용하기에도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③ 어휘

「Apprenons le Coréen!」, 「J'aime le Coréen!」, 「Cours de Coréen」 모두 본문의 하단에 새로운 어휘를 프랑스어 설명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J'aime le Coréen!」, 「Cours de Coréen」은 새롭게 제시된 어휘가 주제와 관련된 것들이지만 「Apprenons le Coréen!」의 경우에는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어휘가 제시되는 경우가 보인다. 또한 한 단원에서 너무 많은 어휘를 일정한 기준 없이 제시하고 있어서 주제와 관련된 주요 어휘를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어휘군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④ 발음

「Apprenons le Coréen!」과 「Cours de Coréen」은 발음표기와 함께 발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J'aime le Coréen!」은 본 단원에서는 발음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예비학습에서 프랑스어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발음 부분에 있어서는 「Cours de Coréen」이 명시된 발음을 통해 표기된 단어와 발음의

차이를 인지하도록 하였으며, 표기와 발음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론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등 다른 교재들에 비해 발음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문화

「Apprenons le Coréen!」과 「Cours de Coréen」은 별도의 문화 부분을 두어 문화 항목을 다루고 있는 반면, 「J'aime le Coréen!」은 별도의 문화 부분을 두지 않고, 본문에서 간접적으로 문화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Apprenons le Coréen!」은 다양한 문화 항목을 다루고 있지 않고, 소개되고 있는 문화 항목들이 주제와 연관이 있지 않지만 초급 단계에서 시와 속담 같은 문화 요소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J'aime le Coréen!」은 호칭과 경어법과 같이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낯설어 하는 항목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Cours de Coréen」은 다양한 문화 요소들을 컬러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있어 다른 두 교재에 비해 문화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의 설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문화와 비교하는 활동으로까지 연계하고 있어서 향후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에 활용해 볼만하다고 하겠다.

⑥ 학습활동

「Apprenons le Coréen!」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활동들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의 활동들을 균형있게 포함하고 있지 않고, 의사소통 중심의 활동들이라고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활동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익숙한 받아쓰기(Dictée)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J'aime le Coréen!」은 다양한 학습활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세 교재

중에서 학습활동 면에 있어서는 가장 부족한 점이 많다.

그에 반해 「Cours de Coréen」은 주교재와 부교재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쓰기 활동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작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요구에도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교재는 말하기, 듣기와 같은 구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고, 부교재는 쓰기, 읽기와 같은 문어 위주의 활동으로 구성하여 구어 능력과 문어 능력을 균형있게 향상시키기 위한 세심한 구성이 돋보인다.

4.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4.1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

4장에서는 3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을 구상하고자 한다.

1) 교재의 구성

① 전체 구성

새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는 주교재와 듣기 CD로 구성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과 문화를 모두 다루는 통합형 교재이다. 전체적으로 교재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등장인물을 설정하고 학습자 중심의 원리를 고려하여 교재 내 메타언어는 프랑스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입부에서 모범적인 대화문을 제시하고, 서술문, 안내방송, 기사, 표지판, 명함, 영수증, 메모, 일기, 광고문 등 다양한 텍스트를 제시하여 문어와 구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교재에 컬러 사진과 삽화 및 다양한 실재 자료를 사용한다.

단원의 구성은 독립된 단원으로 1회 수업시 3~5시간으로 운영된다고 보고,

10개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초급부터 학습량이 많을 경우 자칫 한국어 학습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재를 크게 본 단원의 앞부분, 본 단원, 본 단원의 뒷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구성하도록 한다.

<표 11> 전체 구성

본 단원 앞부분 (교재 사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머리말 일러두기(교재 및 각 과의 구성원리) 교재 구성표(교수요목) 목차 등장인물 소개
본 단원	
본 단원 뒷부분 (학습자를 위한 자료)	정답 및 해설 듣기 지문 문법 및 어휘 관련 자료, 색인

② 단원 구성

새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는 학습자 중심과 한국어로 생활하기 위한 기능 중심의 교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과제와 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단원은 2개의 '대화(Dialogue)', '읽고 말하기(Lire et Parler)', '쓰기(Ecrire)', '문법(Grammaire)', '연습문제(Exercices)', '문학작품(Littérature)', '문화(Culture)' 등 총 일곱 개의 부분으로 구성한다.

각 단원의 날개 부분에 새로운 어휘를 소개하고, 본문의 하단에 발음을 넣었다.

2) 교재의 내용

① 주제

주제는 다양하고 실제적이며,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선정한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고려한 주제와 상황 등을 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은 프랑스 보다는 한국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를 가정하였다.

주제와 각 단원의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과 대화 상대자로 구성한다. 그러나 특정 한국 지명이나 인명 또는 지극히 한국적인 주제나 상황은 초급 학습자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프랑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한다.

② 문법

문법의 습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주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한국어 학습에 꼭 필요한 문형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법 설명에 부합되는 적절한 예문을 제시하며 다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프랑스어로 설명을 하여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급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문법의 경우 대조언어학적 접근으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경어법의 경우 프랑스어에서는 ‘성수인칭’³⁸⁾이 주어-서술어 일치현상에 참여하는 자질인 반면, 한국어에서는 경

38) 프랑스어에서 주어-서술어의 성수인칭

<주어>	<서술어>	
La fille	est	belle. - 소녀가 예쁘다.
Les filles	sont	belles. - 소녀들이 예쁘다.

어법에서 ‘존대자질’ 일치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단원에서 제시되는 문법의 수는 4~5개로 하여 문법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하고,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구어체의 문장을 사용한다. 또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조사에 대한 설명을 강화한다.

③ 어휘

한 단원에 제시되는 새로운 어휘 수는 40~50개로 하여 전체 10단원에서 400~500개의 어휘를 학습하도록 구성하고, 본 단원의 뒷부분에 색인을 참고 자료로 제공한다. 새로운 어휘는 프랑스어로 설명하며, 주제와 관련이 있는 어휘를 제시한다.

④ 발음

발음은 표기된 단어와 실제 발음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음기호를 제시하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초급 학습자임을 고려하여 로마자 표기를 같이 제시한다. 또한 개별 단어의 음운규칙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명하여 학습자들이 음운현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발음 방법을 프랑스어와 비교·대조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특정 발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발음 연습은 개별 음과 대화 및 듣기 등의 발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⑤ 문화

별도의 ‘문화’ 부분을 두어 한국 문화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문화적인 요소가 교재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거부감

없이 한국 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양한 문화항목을 포함하되, 상대적으로 한국인과의 접촉이 많지 않은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하여 한국의 언어 문화와 한국인의 관념 및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고, 나이가 많고 적응에 따라 기본적인 위계가 존재하는 사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에 대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설명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프랑스의 문화 현상과 비교하여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써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와 같은 활동으로 연계하여 한국 문화의 이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용의 단계로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학습 활동

앞서 3장에서 3종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를 분석한 결과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학습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텍스트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언어 기술과의 통합적인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를 황인교(2003)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

<표 12> 학습 활동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다양한 발화가 제공되어야 함. 구어적 특성이 나타나야 함.		다양한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함. 문어적 특성이 나타나야 함.	
실제 상호작용 테이프, 발음연습	실제 듣기 자료 (녹음)	정독과 다독이 가능해야 함.	과정 중심과 결과 중심이 병행되어야함.
실제 과제와 통합 활동이 있어야 함.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활동이 있어야 함.			

따라서 새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는 다양한 텍스트를 제공하고, 언어 기술 간의 통합적인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제시하고자 한다. 문학 작품은 언어 자료이자 문화 자료로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감상의 자료이다³⁹⁾.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에게도 초급의 단계에서부터 어렵지 않은 문학 작품을 접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문학 작품 선정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작품을 다루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일상생활을 다룬 문학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⁴⁰⁾. 문학 작품은 언어 기술에 있어서 정제된 한국어의 표현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과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교재라고 해서 반드시 한국 문학을 다루어야 한다는 틀에서 벗어나, 프랑스인들에게 친숙한 프랑스어로 된 작품을 번역본으로 활용하여 언어 사용의 차이에 따른 느낌을 비교해 보는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좀 더 심화된 언어적, 문화적 학습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학 텍스트는 읽기 자료로써 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 영역의 활동들과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앞서 분석한 3종의 교재와 차별성을 갖는 것이며, 기존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초급의 단계에서는 문학 작품을 다루고 있지 않아서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39) J. Collie and S. Slater(1987)에서는 ① 가치 있고 실제적인 자료(valuable authentic material), ② 문화적 풍요화(cultural enrichment), ③ 언어적 풍요화(language enrichment), ④ 개인적 연관(personal involvement)이라는 특성을 들어 영어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효용성을 설명하였다(윤여탁 2013:157 재인용).

40) 윤여탁(2013)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은 대체로 전통 문화보다는 현실 문화에 친근감을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에서도 학습자가 낯설어 하는 고전문학 작품이나 정전적인 문학 작품보다는 학습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현실 문화나 대중문화를 반영한 현대문학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전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자국의 문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전통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문학 작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4.2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교수요목의 설계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교육 목표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다른 한국어 혹은 외국어 교재의 교육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모든 언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목표어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있는 것처럼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하는 가장 큰 이유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접근해야 할 목표가 있을 것인데, 강승혜(2010)에서는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표 13>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13>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단계별 목표

단계	목표
1단계 (한국어에 익숙해지기)	• 의사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외운 것을 이용해 말할 수 있고 간단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다. • 자기 소개, 가족 소개,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날씨 이야기 등 가능
2단계 (한국어로 생활하기)	•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간단한 생활문과 실용문을 이해할 수 있다. • 사적이고 친숙한 화제에 관련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 • 직접적으로 자신과 관련된 일상생활 분야, 반복되는 일반적이고 익숙한 문제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전화하기, 부탁하기,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관 이용하기 등 가능
3단계 (한국어를)	• 문어와 구어, 공식적인 상황과 비공식적 상황을 구분하고, 친숙하고 구체적인 소재에 대한 담화를 이해할 수 있다.

즐기기)	• 다양한 공공시설의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기초적 언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로 표현하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친숙한 사회적 소재를 문단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 • 경험 이야기, 희망과 목표, 계획과 견해, 제한적인 업무 처리, 일반교양 등에 관련된 담화 가능
------	---

새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는 위의 표에서 제시한 단계별 목표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어와 한국생활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의 교수요목은 문법의 단계정보다는 의사소통에서 주제와 담화 체계를 우선으로 하였다. 문법의 단계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할 경우 모범적이지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지양하고 실용적인 주제와 내용에 맞게 문법과 어휘를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 필요로 하는 과제의 순서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교수요목을 구성하는 것이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에도 부합할 것이다. 다양한 사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 중심의 교과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주제와 활발한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법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문법을 중심으로 본다면, 문법의 단계성을 최대한 고려하였지만 국내 대학기관의 범용교재의 문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새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교수요목이 3장에서 분석한 기존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들의 교수요목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문법적 기능 보다는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교수요목을 설계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분석한 3종의 교재는 그 제시 방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문법 항목에 맞추어 구성하고 있다.

연구자가 개발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교수요목은 <표 14>와 같다.



<표 14>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교수요목

Leçon	Fonction	Vocabulaire	Grammaire	Culture
1. 안녕하세요?	Se présenter	Les salutations	은/는 이다 주어 생략	빈말표현(식사하셨 어요? 밥 한 끼 먹자. 어디 가요?)
2. 이 분은 누구예요?	Se présenter quelqu'un	Nom de métiers	이/가 -으시- Ordre des mots	한국인의 '우리' 의 사용
3. 여기 떡볶이 주세요.	Passer une commande dans un restaurant	Noms de repas	-고 싶다 르동사	호칭(상황에 따라 다르게 쓰이는 가족 호칭어-이모, 언니)
4. 배가 아파요.	Donner des conseils	Noms des parties du corps	-아/어야 하다 -아서/어서 스불규칙	한국에서 생활하기 (유용한 전화번호)
5. 얼마예요?	Demander le prix de quelque chose	Noms de objets, nombres, Les classificateurs	-아/어 보다 -지만	물건 값 흥정하기, 다양한 쇼핑 방법
6. 여보세요?	téléphoner	Les numéraux	-와/과 -을 게요	한국의 배달음식 (전화로 음식 주문하기)
7. 교수님께 이메일 을 써요.	Envoyer un courrier électrique	Les honorifiques	-기 때문 -고 있다	경어법
8. 주말에 뭐 했어요?	Parler d'événements passés	Les mots pour exprimer passer	-았- ㄷ 불규칙	한국 속의 프랑스 (서래마을, 뽀띠 프랑스)
9. 프랑스 문화원 에 어떻게 가요?	Demander le moyen de transport	Moyen de transport	-(으)로 -에(에서) -(으)세요 -까지	경로석, 어른 공경
10. 다음주에 집들 이를 해요.	Fixer un rendez-vous	Les mots pour exprimer futur	-려고 하다 -은/는것 같다	집에 들어 갈 때 (신발벗기). 차린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4.3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의 실제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을 토대로 <표 14>의 교수요목 중 9과에 해당하는 단원을 교재의 샘플로 제시하도록 하겠다.

한국의 ‘교통’이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는 상황 제시가 프랑스에 거주하는 학습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를 가정할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재의 샘플로 구성하였다.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한 단원에 너무 많은 내용을 담기 보다는 실제 지하철 안내 방송, 지하철 노선표, 광고 동영상 등 수업 중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교재의 도입은 학습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으로 설정하여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에서 주로 사용되는 모범 대화문으로 제시하였다.

문법 부분에 있어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의 설명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학습 활동은 초급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기와 듣기 위주로 활동을 구성하고, Pattern drill이나 Reading Comprehension과 같은 단순한 활동과 창의성을 요하는 활동을 고루 구성하였다.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샘플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시를 텍스트로 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작품은 본문에서 학습한 어휘와 문법을 복습하는 학습 자료로써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한국 시에 대한 운율을 느낄 수 있는 감상 자료로써도 가치가 있다. 또한 시의 운율을 살려 읽어 보게 함으로써 발음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모방시⁴¹⁾를 작성해 보는 것과 같은 쓰기 활동으로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41) 모방시를 쓸 때 원시의 형식을 모방함으로써 그 우수함을 직접 느끼는 한편 자신의 창작으로 내용을 채움으로써 우수한 형식을 가진 한 편의 시를 써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외국인 학습자들은 그 시의 운율이나 표현 방법, 의미 등을 파악한 뒤 그 중에서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 모방할 것인지를 생각한 뒤 써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어에 숨어 있는 묘미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방시를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서 한국시와 한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시의 제목이나 주제와 관련하여 ‘자기의 시’를 쓰는 활동을 함으로써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에도 기여하고, 훗날 보다 창의적인 쓰기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이러한 활동을 구안해 보았다.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할 때 한국인의 가치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향후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의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어른 공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한국 문화를 제시할 때에는 다른 영역의 활동들 보다 더욱 참신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광고 포스터, 동영상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프랑스의 문화 현상과 한국의 문화 현상을 비교하여 토론하는 유의미한 활동으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주제	교통
학습 목표	한국에서 교통편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 한국에서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다.
기능	교통편 묻기 교통편에 대해 이야기하기
어휘 문법	교통수단 관련 어휘 - (으)로, - (으)세요 , -에/에서, - 까지
활동	듣기: 교통편 이용과 소요 시간에 대한 대화문 듣기 말하기: 교통편에 대해 묻고 답하기 읽기 : 교통편 이용 경험에 대한 글 읽기 쓰기: 자주 가는 장소까지의 교통편과 소요 시간에 대해 글쓰기 문학: 한국의 시를 감상하고, 모방시 작성하기 문화: 공익 광고를 통해 한국의 어른 공경에 대해 알아보고, 프랑스의 문화 현상과 비교하기

프랑스 문화원에 어떻게 가요?



1. 여기는 어디예요?
2. 알랭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화(Dialogue)

(Alain va à l'institute Français. Il demande à l'information comment se rendre à là.)



알 랭 : 실례합니다.

안 내 :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알랭 : 프랑스 문화원에 어떻게 가요?

안 내 : 이쪽으로 가서 4호선으로 갈아타세요.

알랭 : 어디에서 내려요?

안 내 : 서울역에서 내리세요.

알랭 : 감사합니다.

단어 (Vocabulaire)

실례합니다(실례하다)

excusez-moi 무엇을(무엇을)

quoi

도와드릴까요(도와주다) aider

프랑스 문화원 Institute Français

어떻게 comment

가요(가다) aller

이쪽 ce côté-ci

-으로 vers

-호선 linge de métro

갈아타다 changer

어디 où

-에서 à, dans

내리다 descendre

서울역 gare de Séoul

감사합니다(감사하다) être

reconnaissant

발 음
(Prononciation)

실례합니다[실례합니다, sillehamnida]

Nasalisation: Les consonnes finales ɓ, ɗ, ɔ, ɕ, ɛ, ɞ, ɠ, ɣ, ɲ, ɳ, ʈ, ɬ, ʂ, suivies de ɔ, ɔ se prononcent selon la règle suivant; ɓ, ɗ, ɔ → ɔ ɞ, ɠ → ɔ ɕ, ɛ, ɲ, ɳ, ʈ, ɬ, ʂ → ɔ

무엇을[무어슬, mueoseul]

프랑스 [프랑스, peurangseu] (Attention: le son [r] n'est pas du "r" français)

문화원[무녀원, munwawon] 어떻게[어떠게, eotteoke] 이쪽으로[이쫘그로, ijjogeuro]

같이타세요[가라타세요, garataseyo]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gamsahamnida]

(François prend un taxi pour arriver à l'aéroport international de Incheon)

2



프랑수와 :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 어디까지 가세요?

프랑수와 : 인천공항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택시기사 : 글썄요...

안 막히면 30분 걸려요.

프랑수와 : 네, 알겠습니다.

단어 (Vocabulaire)

택시기사 chauffeur de taxi

-까지 à, jusque

인천공항 aéroport international de Incheon

걸리다 prendre

글썄요 euh...je ne sais pas trop

막히다 être bouché

알겠습니다 J'ai compris

발 음
(Prononciation)

시간이[시가니, sigani]

막히면[마키면, makimyeon] (Attention: Si les consonnes ㄱ, ㄷ, ㅂ, ㅈ se trouvent devant ou après la ㅎ, elles se prononcent comme les aspirées, ㅋ, ㅌ, ㅍ, ㅊ: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ㅈ+ㅎ=ㅊ)

30분[삼십뽀, samsippun]

알겠습니다[알겜썸니다, algetsseumnida]

읽고 말하기(Lire et Parler)



어제 친구와 서래마을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신도림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한국말을 잘 몰라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많이 당황했어요.



단어(Vocabulaire)

어제 hier
 친구 ami(e)
 -와 avec
 서래 마을 quartier des français à
 Séoul 약속 rendez-vous
 잘 bien
 모르다 ne pas savoir
 물어보다 demander
 어렵다 être difficile
 못하다 ne pas pouvoir
 그래서 c'est pourquoi
 많이 beaucoup
 당황하다 (être) embarrassé(e)

1. 어디에서 약속이 있었어요?

2. 왜 당황했어요?

발 음
 (Prononciation)

친구[칭구, chingg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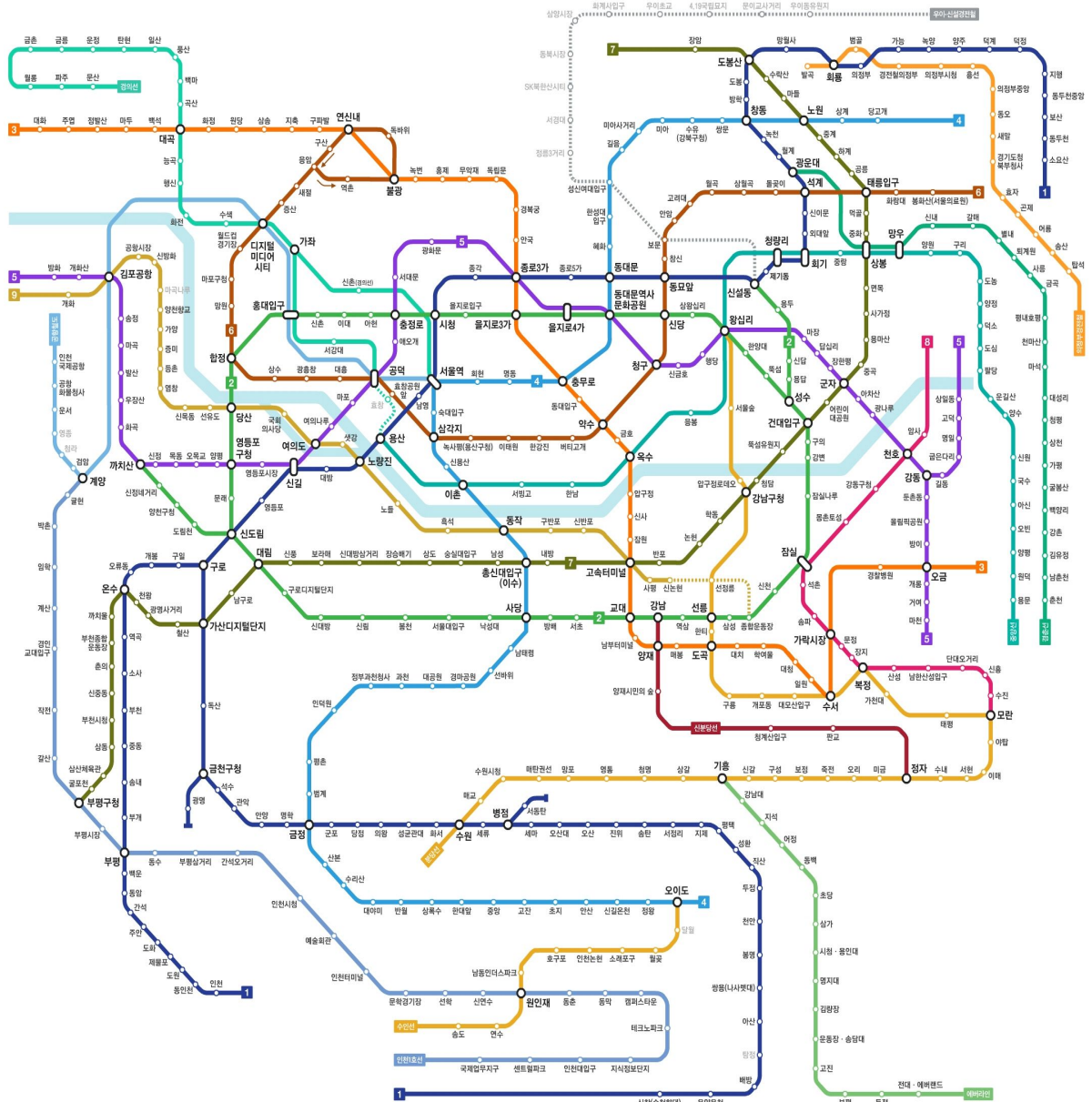
약속이[약소기, yakssogi]

있었어요[이씨씨요, isseosseoyo]

한국말[한궁말, hangukmal]

많이[마니, mani] (Attention: 많 se prononce comme [ㄴ])

지하철 노선(Ligne de mé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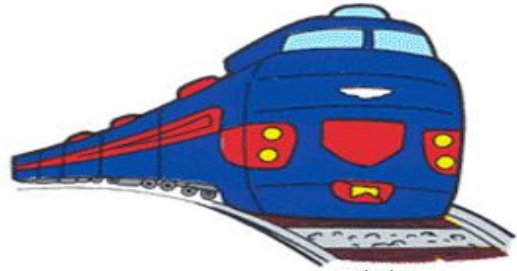
경복궁까지 어떻게 가요?

이태원까지 어떻게 가요?

교통수단(Moyen de trans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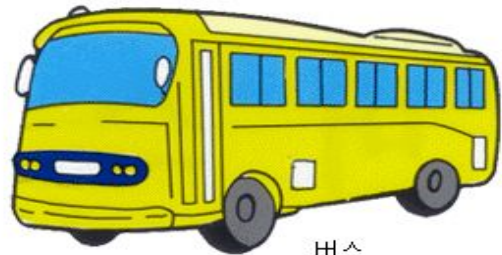
택시



기차



트럭



버스



오토바이



자전거

<보기> 와 같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Parlez avec vos amis comme l'exemple.

< 보기 >

가 : 학교에 어떻게 가요?

나 : 자전거를 타고 가요.

쓰 기(Écrire)

1. 보기와 같이 쓰세요.

Écrivez comme dans l'exemple.

<보기>

가: 배가 아파요. 어떻게 해요? (병원)

나: 병원에 가세요.

(1) 가: 차가 많이 막혀요. 어떻게 해요? (버스)

나: _____

(2) 가: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요? (밥)

나: _____

(3) 가: 너무 추워요. 어떻게 해요? (코트)

나: _____

(4) 가: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공부)

나: _____

2. <보기>에 있는 단어로 문장을 완성하세요.

Complétez les phrases avec les mots convenables

<보기>

택시, 버스, 내리다, 갈아타다, 빠르다, 느리다

(1)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어떻게 가요?

⇒ _____(으)로 가요.

(2) 덕수궁에 어떻게 가요?

⇒ 여기에서 2호선을 타세요. 그리고 시청역에서 _____

(3)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서 30분 걸려요. 그런데 자전거로 가면 10분 걸려요.

⇒ 자전거가 _____

3. <보기>와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Complétez les phrases comme l'exemples.

<보기>

차가 막히다. 약속에 늦다. ⇒ 차가 막히면 약속에 늦어요.

(1) 일찍 일어나다. 기분이 좋다. ⇒ _____

(2) 바쁘다. 연락을 못하다. ⇒ _____

(3) 늦게 자다. 피곤하다 ⇒ _____

문 법(Grammaire)

1. - (으)로 (particule de moyen)

가 : 도서관에 어떻게 가요? Comment allez-vous à la bibliothèque?
나 : 지하철로 가요. J'y vais en métro.

(예) 2호선으로 갈아타요. Je change de la ligne 2.
버스로 가요. Je vais en bus.
자전거로 가요. Je vais en vélo.

2. Infixe honorifique - (으)세요

Quand le radical du verbe se termine par une voyelle, on ajoute -세요 et quand il se termine par une consonne, on ajoute -으세요.

타다	: 타 -세요	⇒	타세요
내리다	: 내리 -세요	⇒	내리세요
읽다	: 읽 -으세요	⇒	읽으세요

3. -에(à, dans, vers) particule de lieu

- (1) 나는 학교에 간다. Je vais à l'école.
(2) 이자벨은 집에 있다. Isabelle est à la maison.

-에서(à, dans) particule locative scénique
(de) particule locative de provenance

- (1) 나는 집에서 잔다. Je dors à la maison.
(2)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다. Les enfants reviennent de l'école.

4. - 까지 (à, jusqu'à)

(1) 장소(lieu)

- 지하철역까지 택시를 타요. Je prends un taxi à station de métro.
학교까지 걸어서 가요. Je vais jusqu'à l'université à pied.

(2) 시간(temps)

- 저녁까지 일해요. Je travaille jusqu'au soir.
6시까지 공부해요. J'étudie à 6 heures.



연습문제(Exercises)

1.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Écoutez et répondez aux questions.

니콜은 강남역에서 친구와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사당역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야 합니다.

니콜 : 실례합니다. 이번 역이 사당역이에요?

아주머니 : 아니요. 벌써 지났어요.

니콜 : 그럼, 어떻게 해요?

아주머니 :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그리고 반대방향으로 갈아타세요.

평홍 : 고맙습니다.

(1) 니콜은 어디에서 약속이 있어요?

- ① 강남역 ② 명동 ③ 사당역 ④ 강동역

(2) 니콜은 몇 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 ① 1호선 ② 2호선 ③ 3호선 ④ 4호선

2.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Jeu de rôles : préparez un dialogue avec vos amis.

- 방학 때 어디에 가요?
- _____ 까지 어떻게 가요?
- 거기에서 무엇을 할 거예요?

3. 다음을 읽고 참인지 거짓인지 답하세요.

Lisez le texte et répondez si les affirmations suivantes sont vraies ou fausses.

주말에 나는 소피, 유나, 앤드류와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공항까지 가는데 차가 많이 막혔지만 다행히 비행기를 탈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까지 1시간 10분쯤 걸렸습니다. 제주도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1) 나는 소피, 유나, 폴과 어제 여행을 갔습니다. ☐ ☐

(2) 우리는 제주도까지 배로 갔습니다. ☐ ☐

(3) 제주도까지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 ☐

4. 빈 칸을 완성하여 보기와 같이 써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Complétez le tableau et écrivez comme l'exemples.

Jeu de rôles : préparez un dialogue avec vos amis

어디에 가요?	어떻게 가요?	얼마나 걸려요?
학교	걸어서	10분

보기

나는 학교에 걸어서 갑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10분 걸립니다.

시(Poème)



오랑캐꽃 7
(물거품의 나날)

- 이가림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먼지의 도시로 간다

단어(Vocabulaire)

오랑캐꽃	violette
물거품	écume
나날	jours
오늘	aujourd'hui.
먼지	poussière
도시	cité

1. 시를 읽고 느낌을 말해보세요.

Lirez ce poème et parlez votre sentiment.

2. <보기>처럼 여러분의 시를 써 보세요.

Composez votre poème comme l'exemple.

<보기> 나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희망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희망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희망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희망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희망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희망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기차를 타고 희망의 도시로 간다

나는

오늘도 _____를 타고 _____로 간다

나는 오늘도

_____를 타고 _____로 간다

나는 오늘도 _____를

타고 _____로 간다

나는 오늘도 _____를 타고

_____로 간다

나는 오늘도 _____를 타고 _____

_____로 간다

나는 오늘도 _____를 타고 _____로

간다

나는 오늘도 _____를 타고 _____로 간다

문화(Culture)



Dans le métro, les sièges réservés sont situés à chaque début et fin de rame. Les seniors ont la priorité sur ces sièges désignés.





1. 광고 포스터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Parlez en vos servant de publicité.

(1)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Qu'est-ce qu'ils font?

(2) 어떤 자리에 앉아 있나요?

Quel siège asseyent-ils?

(3) 왜 노인은 쭈그리고 앉아 있나요?

Pourquoi cet vieil homme assoit sur les talons?

(4) 광고 카피는 무슨 뜻인가요?

Que signifie cette copie?

2. 한국과 여러분 나라의 어른 공경에 대해 비교해 보세요.

Comparez le respect aux personnes âgées de coréen avec celui de votre pays.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동안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교재 개발에 관해서는 활발한 연구가 있어 왔지만 영어권을 제외한 서양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진한 편이다. 최근 5년 사이에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발음교육에 관한 것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접근하지 않았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초급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교재 개발 방안 연구를 위해 먼저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논하였다. 또한 대조 언어학의 관점에 근거하여 크게 발음면, 어휘면, 문법면에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오류들을 살펴보았다.

교재 개발에 앞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3종의 통합형 교재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재의 구성과 내용에 초점을 맞춘 교재 분석 기준표를 구성하였다. 교재 분석 기준표에 근거하여 기존의 교재들을 분석한 결과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교수요목을 설계하고 그 중 한 단원을 선정하여 교재 구성 모델의 한 예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국어 초급 교재의 교수요목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것으로, 향후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중, 고급 교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 개발될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초급 교재는 프랑스에서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나 바칼로레아를 거쳐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재는 현재 한국어 교육의 흐름에 맞추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문화가 통합된 통합교재의 성격을 띤다.

교재의 주제는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게 될 경우를 가정

하여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과제들을 부여하였다.

문법은 가능한 한 프랑스로 설명하려고 하였으며 다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예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와 관련된 어휘들도 프랑스로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로마자로 발음표기를 하여 프랑스로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다.

문화는 한국인의 근간을 이루는 어른 공경 사상에 대해 다루었다. 이러한 사상을 반영한 지하철의 경로석을 사진과 함께 프랑스어 설명으로 제시하고, 어른 공경 사상이 퇴색되어 가는 현실에 비판적인 공익 광고의 포스터도 함께 제시하였다. 프랑스로 학습자들은 이미 한국의 음악, 드라마, 영화 등에 익숙하기 때문에 광고 포스터와 동영상 등을 활용한 자료는 프랑스로 학습자들을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고, 향후 수업을 통한 활동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 교육은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프랑스의 문화 현상과 비교하고 토론하는 활동으로까지 확장하여 보았다.

본고에서 제시한 교재 구성 모델은 기존에 개발된 프랑스로 학습자를 위한 교재들과 크게 두 가지 면에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첫 번째 특징은 가능한 한 프랑스어와 한국어, 프랑스 문화와 한국 문화를 비교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두 언어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프랑스로 학습자들은 비판적 사고력을 개발할 수 있고, 한국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두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프랑스로 학습자들이 문화 일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국내 대학 기관의 언어교육원은 초급의 경우에 문학 작품을 다루지 않고 있지만 문법보다는 주제나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한 프랑스로 학습자를 위한 교재 모델에서는 초급의 단계에서부터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바칼로레아를 준비하는 학습자들의 편의를 돕고, 문학 작품을 의사소통의 장치로 활용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익힌 실제적인 표현과 문화의 습득으로 보다 고급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가 진행되기에 앞서 프랑스에 거주하는 학습자들의 요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행연구에 의존하였다는 점과 교재 구성 모델을 실제로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에게 적용하여 그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은 향후 프랑스어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되기를 바라며,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한국어 초급 교재의 분석을 통해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중, 고급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도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1. 자료

- 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2009). 『국내외 한국어 교재 백서』. 국립국어원.
권용해외. (2013). 『Cours de Coréen』. 다락원
김영만. (2005).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역락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2003). 『한국어 1』. 문진미디어
서울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국어교육연구소, 언어교육원 공편. (2011).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1, 2』. 아카넷
서종학, 이미향. (2007). 『한국어 교재론』. 태학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2008). 『연세 한국어 1-1, 1-2』.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윤소영. (2012). 『J'aime le Coréen』. 신아사
조영미외. (2010). 『Integrated Korean Beginning 1, 2』. University of Hawaii Press
최은숙외(2013). 『Apprenons le Coréen!』. Presses Universitaires de Bordeaux
Christiane Dalton & Barbara Seidlhofer. (2004). 『Pronunci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 연구논저

- 강남옥. (2005). 「교재 평가론을 통한 초기 한국어 교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고혜진. (2011). 「베트남어권 학습자 맞춤형 한국어 교재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용해. (2006). 「초급 한국어 교수법 모델 및 교재 구성에 대한 연구 : 프랑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영란. (2009). 「한국어교육 교재의 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애. (2013). 「음향 분석을 통한 프랑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주향. (2010).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무역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민상희. (2010).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방안 연구 : 베트남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세희. (2012). 「프랑스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및 습득 패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혜정. (2008). 「한국어 교재의 문화항목 연구 : 초급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호은. (2012).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음운 대조 분석과 학습자 오류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용재. (2008).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기 과정 교수요목 설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재홍. (2006). 「러시아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초급교재개발 방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아. (2000). 「일본인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과 개발 방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선화. (2014). 「여성결혼이주민의 자녀 양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 영아기(0~24개월)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엘레나. (2011).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 대학용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운정. (2012). 「러시아 사하공화국 한국어교육 현황과 현지 사용 초급 교

- 재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희. (2014). 「한국과 일본의 초급단계 한국어 교재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휘. (2009).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혜원. (2013). 「한국어 단기 과정 학습자를 위한 교재 분석 및 개발 방안」.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경미. (2009). 「파키스탄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주리. (2011).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정. (2010). 「중국내 한국어 초급 교재의 비교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황수정. (2010). 「스페인어 화자를 위한 초급 한국어 교재 모형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GUILLAMET BENOIT. (2010).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방안: 학습자 인식 조사 및 문법성 판단 테스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Suci Dewi. (2010). 「인도네시아 대학생들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강승혜. (2012).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37권,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1-39.
- _____. (2010). 「영어권 표준 한국어 교재 실태 및 개발 방안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권용해. (2012). 「한국에서의 교수법을 응용한 프랑스에서의 한국어 교수법 연구」. 제4차 유럽 한국어 교육자 현지 워크숍 자료.

- _____. (2005). 「프랑스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재 개선 방안: “한국어1” “Integrated Korean Beginning1”을 사용한 후」. 『한국어교육』 1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70.
- 김동환. (2012). 「모국어 지배 환경에서의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사례연구: 태국내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43집, 국어교육학회, 61-98.
- _____. (2010). 「한국어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읽기텍스트 선정 전략 연구-문화교육을 위한 현대소설 제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39집, 국어교육학회, 133-167.
- _____. (2009).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189-211.
- 김성주. (2008). 「터키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KORCE 1·2·3」. 『한국어문학연구』 제50권, 한국어문학연구학회, 69-97.
- _____. (2005). 「범용 한국어 교재와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한국어언어문화학』 제2권 2호, 국제한국어언어문화학회, 1-17.
- 김수현. (200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의 문화 교육에 관한 일고찰: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제11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319-341.
- 김윤주. (2011).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교재 비교 분석」. 『우리어문연구』 39집, 우리어문학회, 337-368.
- 김정숙외. (2011).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제46호, 이중언어학회, 19-43.
- 김정우. (2008). 「중국의 한국어 교재 비교 분석-기초 교재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한국어문학연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87-413
- 김지은. (2010). 「주어의 언어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와 프랑스어의 대조」. 『한국프랑스학논집』 제70집, 한국프랑스학회, 1-30.
- 나애리. (1997). 「불어와 한국어 음운체계의 비교」. 『한국프랑스학논집』 제22집, 한국프랑스학회, 59-82.

- 민현식. (2000). 「한국어 교재 분석의 실태 및 대안」. 『국어교육연구』 제7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5-60.
- 박동열. (2004). 「한국어 형용사 범주에 관한 연구:프랑스어 형용사 범주와 비교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18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21-250.
- _____. (2004). 「한국어 격 실현에 관한 연구 : 프랑스어 격 실현과 비교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17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167-189.
- _____. (2003). 「한국어의 인칭범주 : 프랑스어 인칭체계와 비교 연구」. 『프랑스어문교육』 제15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163-185.
- 박성창. (2004). 「한국어교육과 문학의 연관성 탐색 : 문학 텍스트와 외국어 교육-외국인을 위한 프랑스어 교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14권,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35-253.
- 박소연. (2011). 「일본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분석-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2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9-121.
- 박영순. (2011). 「문화어를 통한 한국문화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제6권, 세계한국어문학회, 123-156.
- _____. (2003). 「한국어 교재의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어 교육』 제14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9-188.
- 백봉자. (1999). 「서양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한국어 교육』 제10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16.
- 손호민. (2008). 「한국어의 유형적 특징」. 『한글』 282호, 한글학회, 61-95.
- 손희연. (2007). 「외국어 수업의 사회언어학적 특성과 문법 교육: 프랑스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의 예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제6집, 한국문법교육학회, 115-139.
- 심승자. (2002). 「프랑스 바칼로레아(Baccalaureat)와 한국어」. 『국어교육연구』 제10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365-381
- 엄녀. (2007). 「평가 기준을 통한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 - 북경대학(北京大學) 조선문화연구소(朝鮮文化研究所) 『한국어 1, 2』와 상

- 해복단대학(上海復旦大學) 『초급한국어 (상, 하)』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5-262.
- 유영지. (2010).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 『국어교과교육연구』 제17호, 국어교과교육학회, 139-168.
- 유현정. (2013).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 한국어 교재의 발음교육 방안 연구 - 발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제32집,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489-511.
- 윤여탁. (2013).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제10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49-176.
- 이민희. (2013).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재 개발의 현재와 방향 : 중·동유럽 학습자 대상 맞춤형 한국어교재 개발을 위한 제언」. 『중·동유럽한국학회지』 제14권, 중·동유럽한국학회 93-120.
- 이병규. (2005).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이소영, 한성일. (2008).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분석과 과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제37권 1-39.
- 이홍. (2004). 「L'état actuel de l'enseignement du coréen à Paris」. 『한국프랑스학논집』 제48집, 한국프랑스학회, 82-102.
- 조태린. (2013). 「국내 한국학 관련 커리큘럼 분석 : 프랑스 주요대학의 한국학 커리큘럼을 중심으로」. 『동방학집』 제163집, 239-259.
- 조항록. (2003).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기초적 논의 : 교재 유형학적 관점에서 본 교재 개발현황과 주요 정점」. 『한국어교육』 제14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49-278.
- 진대연. (1999). 「한국어 교재 분석의 기준: 연구와 적용」. 『국어교육학연구』, 제9권 1호, 국어교육학회, 407-434.
- 최운곤. (2006). 「중국어 한국어 교재 개발 현황 - 정독 교재를 중심으로 -」. 『한국언어문화학』 제3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57-270.
- 최은정, 권종분. (2004). 「프랑스어권 학습자 대상의 교재에 나타난 문법 항목 고찰」. 『한국어교육』 1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9-70.

- 최진숙. (2010).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 『인문연구』 제59권, 영남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27-154.
- 홍용철. (2009).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명사구」. 『프랑스어문교육』 제31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43-280.
- 황인교. (2003). 「국내·외 한국어 교재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8권, 연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학당, 287-329.
- Martine Prost(1997). 「한국어 학습 및 교육상의 문제점 - 프랑스인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제7차국제학술회의 논문초록』,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28-130.

3. 참고 사이트

유럽한국어교육자협회	http://eurokorean.org/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http://www.educoree.fr/
파리7대학교 한국학과 홈페이지	http://www.univ-paris-diderot.fr/LCAO
프랑스 한국학 연합(AFPEC)	http://afpec-etudescoreennes.com/
한국어능력시험	www.topik.go.kr
한류 관련 사이트	http://www.cours-coreen.fr
	http://www.coree.kimiko.be
	http://www.encoreedusud.com
	http://www.autrementlacoree.com
	http://www.hallyu.fr
	http://www.olalakorea.fr
한불 상공회의소	http://www.fkcci.com
INALCO 홈페이지	http://www.inalco.fr
OIF 홈페이지	http://www.francophonie.org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asic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rancophonie Learners

Jeon Hye Jeo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is to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asic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rancophonie learners.

To do this, clarified the goal and a necessity of this study, presented the research method and examined the previous studies in chapter 1.

In chapter 2, examined the current of Korean education in France and errors of Francophonie Learners.

In chapter 3, compared and analyzed basic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rancophonie learners to find ways of development of textbooks. For comparison analysis, selected 3 integrated textbooks which were recently developed and constructed standard for analysis of textbooks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contents. Compared and analyzed 3 textbooks depending on standard for analysis and drew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In chapter 4, checked the points to be considered in development of textbooks and established an direction of development of basic Korean language textbooks for Francophonie learners. In principle, new basic Korean textbook for Francophonie learners' metalanguage is French.

And It is an integrated textbook which can improve Korean communicative competence such as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Also suggested a variety of texts which keep a balance between spoken and written Korean to enhance that study of pronunciation, spoken Korean, and Korean honorifics.

For culture, put emphasis on the parts of Korean language culture, thoughts and values and enabled to compare the Korean and French culture.

Based on these discussion, presented the sample of the basic Korean textbook for Francophonie learner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itiated discussion on the development of basic Korean textbooks for Francophonie learners who have been so far isolated from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has the limitation that the expected educational effects are not proven by real performance of the textbook in France.

But I expect that there will more researches and develop a variety of text books focusing on Francophonie learners.

【Key words】

Francophonie learner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France, Basic Korean language textbooks, Development of Korean language textbooks, Analysis of textbooks, Literature text, Korean culture education